



축하강산



10

주제 110(2021)

루계 제386호 월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오늘의 조국사 2021 ISSN 1727—9062

차례

주체110(2021)년 10월호

표지: 경축의 열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3돐경축 민간 및 안전 무력열병식이 성대히 거행된 김일성광장에 차넘치는 인민의 열광.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뭉쳐 자위의 굳건한 성새를 이룬 일심일체의 참모습은 공화국의 노도와 같은 전진기상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역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 방향에 대하여』를 하시였다 ······ 2

공화국창건 73돐 성대히 경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3돐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열병식 성대히 거행	10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을 축하	18
공화국창건 73돐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열병식 참가자들 수도의 거리들을 통과, 평양시민들 열렬히 환영	20

어머니당, 심부름군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여	22
인민의 신뢰를 받는 당으로	24
일화	
위민현신의 나날에	25
양어발전의 새 역사를 열어놓으시여	26
메기양어의 과학화	30
그물우리양어장	3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중에서 새 무장력의 탄생	34



10



30

42



49



44

56



64

공화국창건 73돐에 즈음하여 해외동포들이 다채로운 경축행사 진행	37
과학기술이 공장의 발전을 견인	38
스승과 제자들	42
관심을 모으는 『학봉』의 약품들	44
조선의 첫 2종올림픽우승자	46
100살은 꿈이 아니다	48
침상에서 창작한 80여편	49
개성있는 가구제작가	50
조국의 품에 안겨 농업생물학자가 걸어온 길	52

고향소식

오늘의 성천	54
전통명주와 그 양조가들	56
역사유적유물을 보존관리하는 사람들	60
함경남도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1)	62
조국의 각 도 특산물들 (28)	63
10월의 절기와 민속	63
리상좌와 그의 그림들	64
지명유래 황해남도의 일부 지명들 (1)	66

야화

벌통도 한몫을	67
죄의식이 전혀 없는 확신범	68
명승·태성호	70

상식

조선절	52
혈전치료에 좋은 식품들	59
유모아 누가 깜깜인가	67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를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9월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 2일회의에서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연설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철석의 의지를 지니고 위대한 새 승리를 향한 견인불발의 로력투쟁을 벌리고 있는 수천만 인민들의 기대속에 존엄높은 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회의에 참가한 대의원들을 축하하시고 격변하는 주객관적정세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기 위한 공화국정부의 시정방침을 천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온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계기로 우리 국가체일주의를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는 획기적인 발

전단계에 들어섰다고 하시면서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대외관계를 비롯한 각 부문에서 일어나고있는 긍정적변화들에 대하여 개괄분석하시였다.

불리한 환경과 난관속에서도 주체적힘과 내적동력을 중대시키기 위한 우리 당과 국가의 일관되고 심도있는 강력한 투쟁에 의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주체인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더욱 다져지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리념을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과정에 국가사업에서 인민적성격이 뚜렷이 발현되고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품이 현저히 개선됨으로써 당과 국가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가 두터워지고 애국적열의와 적극성이 제고되었다고 평가하시였다.

특히 당의령도밑에 인민군대가 애국의 땀을 아낌없이 바쳐 인민을 보위하고 사심없이 돋는 혁명적본분에 항상 충실한것으로 하여 군민일치의 출렁한 전통이 확고히 이어지고 불패의 것으로 든든히 다져졌다고 하

시였다.

혁명의 계승자들인 우리 청년들의 기세가 고조되고 어렵고 힘든 부문에 탄원하는 열풍이 세차게 일어난 것은 사회주의 건설의 약동하는 활기를 더해 준 대단히 중요한 성과라고 하시면서 사회주의 건설의 지속적인 승리와 양양한 전도를 락관하게 하는 이같은 정치적 성과들이 이루어진 것이야말로 우리 당과 국가의 무한한 힘으로, 커다란 자랑으로 된다고 언명하시였다.

경제건설분야에서도 자립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기 위한 통이 큰 작전들이 힘 있게 추진되고 대규모의 중요대상건설사업이 활기있게 전개되고 있으며 농업과 국토건설, 도시경영, 과학, 교육, 보건을 비롯한 여러 부문 사업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심화되어 나라의 부흥발전을 안반침하는 진일보의 성과들이 이루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국방부문에서 조선반도지역의 불안정한 군사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적대세력들의 군사적 준동을 철저히 억제할 수 있는 위력한 새 무기체계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비상히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있는 우리의 첨단무기들과 날로 강화되는 인민군대와 민간 및 안전무력의 전투적 면모를 높고서도 사회주의 승리의 앞길을 강력히 개척해나가는 우리 당과 국가의 강대함을 확신할 수 있다 고 하시였다.

정의와 진리를 대표하고 철

저한 실행력을 내포한 공화국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은 국제 정치무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 국가의 대외적 권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총체적으로 우리식 사회주의는 부단히 강화되는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더욱더 새로운 활력을 가지고 자기의 발전궤도를 따라 줄기차게 전진하고 있음을 당당히 자부할 수 있다고 언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시정연설에서 현시기 공화국정부 앞에 나서는 정책적 파업들에 대하여 상세히 밝히시였다.

우리당 제8차대회가 엄숙히 선포한대로 공화국정부 앞에 나서는 가장 중대한 임무는 5개년 계획수행의 첫해부터 인민들이 기다리고 반기는 실제적인 성과, 실질적인 변화로써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막중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성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전 전선에서 비혁명적이고 비전투적인 락후한 모든 것을 불살라버리며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을 이루 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반도지역의 불안정한 군사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적대세력들의 군사적 준동을 철저히 억제할 수 있는 위력한 새 무기체계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비상히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있는 우리의 첨단무기들과 날로 강화되는 인민군대와 민간 및 안전무력의 전투적 면모를 높고서도 사회주의 승리의 앞길을 강력히 개척해나가는 우리 당과 국가의 강대함을 확신할 수 있다 고 하시였다.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핵으로 하는 우리의 정치사상적

위력은 주체조선고유의 불가항력이며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추동하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하시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우리 국가의 정치풍토, 국풍으로 공고화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실속있고 목적지향성 있게 전개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모든 사업을 조직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평범한 근로자들의 리익을 최우선시하고 대중의 자각적 열성과 창조적 적극성에 의거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며 당과 국가의 정책집행을 지도하는 일군들 속에서 조선로동당에 고유한 인민적 사업 작품을 배양하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고 사소한 반인민적 행동도 나타나지 않도록 교양과 통제, 비타협적인 투쟁을 중단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전사회적으로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고취하고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는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공민들이 일상사업과 생활의 모든 면에서 강한 나라의 인민다운 기품과 인격이 발양되도록 옳게 인도하는 것을 비롯하여 사회주의의 정치사상진지를 더욱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경제의 자립적이며 전반적인 발전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파업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시였다.

국가경제를 자립적이며 전반적인 발전에로 이행시키는 것을 절박한 시대적 파제로 제기하고

이 투쟁을 강력하게 조직전개하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언명하시였다.

공화국정부는 인민경제의 자립적, 전반적 발전을 위한 국가적인 계획을 정확히 수립하고 그 실현조건을 주동적으로 성숙시키면서 강하게 추진하며 뒤떨어진 부문과 단위들이 자기 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망 목표와 단계별 계획을 명백히 세우고 완강하게 집행하도록 옳게 지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경제사업에서 현시기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원료와 자재, 동력과 설비들을 충분히 생산보장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경제 중요부문들에 원료를 보장하는 기본생산부문인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의 발전을 전반적 경제발전에 앞세우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주요제철소, 체강소들과 철광산들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경제기술적 대책을 면밀히 세우며 금속공업부문의 능력 확장과 현대화 사업을

동시적으로 힘있게 내밀어 가까운 앞날에 국가적인 철강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화학공업부문에서 온 나라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 속에 진행하고 있는 탄소하나화학공업 창설 사업을 과학기술적 담보 밑에 힘 있게 추진하고 회망초를 출발원료로 하는 기초화학공업을 발전

시키며 갈에 의한 종이와 섬유 생산을 실현하고 갈탄을 화학공업의 기본원료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과 촉매의 국산화를 다그칠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시였다.

이와 함께 국가적으로 전력파석 탄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데 힘을 넣어 인민경제의 당면한 수요만이 아니라 전망적 수요도 충분히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의 선행관인 철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밝히시고 기계공업과 정보산업을 발전시켜 설비의 국산화와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놀도록 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경제여러 부문의 현존생산공정들을 개선하고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라고 하시면서 당의 정비보강전략에 따라 인민경제적으로 의의가 큰 중요대상건설에 력량을 집중하여 계획한 생산능력 확장사업을 모가 나게 내밀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부문에서 송신, 송화지구의 살림집 건설을 올해 중으로 완공하고 다음 단계의 1만세대 살림집 건설에 련속적으로 진입하여 또 하나의 현대적인 구역과 거리를 일떠세우며 새로운 건축형식을 적극 도입하면서 수도건설의 새 전기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그리고 인민군대에서 맡아 추진하고 있는 검덕지구 건설을 빠른 기간안에 결속하고 도, 시, 군들에서도 살림집 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모든 인민들이 훌륭한 살림집을 쓰고 살면서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국적인 국토건설총계획을 바로세우고 도, 시, 군들에서 치산치수를 비롯한 국토관리사업을 책임적으로 집행하여 5개년 계획기간 안에 큰 물에 의한 피해 위험성을 기본적으로 없애며 나라의 생태환경을 일신하고 도시원림록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록색성장계획을 실속있게 추진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현시기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국가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그 잠재력을 발휘하는데서 초미의 과제로 나서고 있다고 하시면서 내각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수행의 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데서 나서는 방법론적 문제들에 대하여 상세히 밝히시였다.

대외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도를 심화시켜 모든 무역 활동이 경제부문의 수입의 존성을 줄이고 자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확대발전되도록 하며 경제관리부문에서 국가경제지도기판들의 집행력을 강화하고 근로자들의 리익을 보장하기 위한 과학적인 방안들을 진지하게 연구 적용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이루하는데서 현시기 가장 중요하고 사활적인 혁명과업은 인민생활을 안정 향상시키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를 위한 정책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들에게 안정되고 유족한 생활을 제공해주자면 농업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농업생산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가까운 앞날에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소하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결심을 펴력 하시였다.

그 어떤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에서도 농업생산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할수 있게 농업발전전략을 정확히 작성하고 철저히 집행해나가며 특히 재해성이상기후에 견디여내면서도 소출이 높은 종자들을 육종, 개량하는데 초점을 두고 종자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씀 하시였다.

농작물배치를 대담하게 바꾸어 벼농사와 밀, 보리농사에로 방향전환을 할데 대한 구상을 밝히시면서 전국적으로 논벼와 밭벼재배면적을 늘이며 밀, 보리파종면적을 2배이상으로 보장하고 정보당 수확고를 높여 인민들에게 흰쌀과 밀가루를 보장함으로써 식생활을 문명하게 개선해나갈수 있는 조건을 지어 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 재해성이상기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책의 하나로서 품종배치와 파종시기를 합리적으로 잘 조절하는것을 비롯한 새로운 선

진영농기술과 방법을 적극 연구 적용하고 앞선 단위들의 우수한 성과와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보급하는 사업을 광범히 조직 전개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이와 함께 과학적인 물관리체계를 세우고 물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적과업으로 설정하고 모든 관개구조물들과 설비, 저수지와 물길들을 정비보강하며 기상기후조건에 맞게 물관리를 과학적으로 하여 가물과 큰물피해를 막고 농사에 필요한 물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재해성이상기후에 대처할수 있게 기상관측수단을 현대화하고 기상예보사업의 신속성과 과학성, 정확성을 철저히 보장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축산부문에서 풀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당정책의 요구대로 염소와 소마리수를 결정적으로 늘이고 전군 중적운동으로 토끼기르기를 대대적으로 하며 사료단위를 극력 낮추고 수의방역사업을 개선하는데 주목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특히 당의 새로운 육아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전개하여 전국적인 젖생산량을 현재의 3배이상으로 늘이며 젖가공기술을 발전시키고 젖제품의 질을 철저히 보장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파일과 남새생산을 집약화하고 대규모남새온실농장들을 많이 건설하며 기름작물, 당작물을 비롯한 공예작물생산을 추켜세워 인민생활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중앙과 도, 시, 군들에서 시대발전의 요구에 맞게 농업부문의 새로운 전형단위, 본보기단위를 창조하고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전개할데 대하여서와 농업부문에서 허풍을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벌릴데 대하여, 국가적수요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농업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높일수 있게 알곡을 비롯한 농산물수매방법을 바로 정하고 옳게 실시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적지원을 강화하는데 대한 문제, 시, 군량정사업소들을 잘 그리고 량곡가공공정을 현대화할데 대한 문제, 국가에서 래년부터 시, 군들에 세멘트를 무조건 보장해주는것을 정책화, 법화하여 지방건설발전을 촉진시키고 사회주의농촌들의 면모를 개변시킬데 대한 중대계획과 구상들을 구체적으로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경공업을 발전시켜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킬데 대한 정책적과업들을 언급하시였다.

현시기 인민생활보장에서 나서는 급선무는 경공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려 인민들이 요구하는 필수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으로 인민소비품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6개월 이상 선행시켜 무조건 보장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공업부문에서 원료의 국산화와 재자원화를 중요한 정책적 문제로 틀어쥐고 이 사업을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여 해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소비품생산에서 인민성을 높일데 대하여 특별히 언급하시면서 소비품의 질을 제고하고 품종을 늘이며 원가를 낮추는것을 경공업부문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또한 시범적으로 개건표준화하고있는 강원도 김화군 지방공업공장들의 공사를 다그쳐 끝내고 그 경험에 토대하여 전국의 시, 군 지방공업공장들의 기술개선을 빠른 시일안에 완성할데 대하여서와 지방의 경공업원료들을 소비품생산을 늘이는데 남김없이 동원하며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과 생활필수품생산을 적극화하고 사회주의상업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방도들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수산업발전에 힘을 넣을데 대한 정책적과업들을 언급하시였다.

수산부문에서 고기배와 어구의 현대화와 수리정비를 다그치고 집중적인 어로전투를 벌려 더 많은 물고기를 잡으며 물고기통출임을 비롯한 여러가지 수산물가공품들을 만들어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을 윤락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와 함께 수산자원보호와 관리를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수산자원을 파괴하는 행위들을 엄격히 단속통제하며 바다와 강, 호수들에 새끼물고기를 방류하는

사업을 눈에 띠도록 활발히 하고 양어와 양식을 대대적으로 벌려 더 많은 수산물을 생산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의 문명수준은 국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이며 국가부흥과 발전, 미래를 보여주는 징표라고 하시면서 과학과 교육, 보건을 비롯한 사회주의문화의 모든 분야를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밝히시였다.

공화국정부는 과학기술을 중요한 국책으로 일관하게 틀어쥐고 모든 부문,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생산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과학기술발전과 혁신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자체의 과학기술력량을 키워 그들이 주도적, 핵심적역할을 해나가도록 하는것이 국풍으로 되게 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과학연구부문에서는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절박한 해결을 요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시급히 푸는것을 종자로, 기본파제, 선결과업으로 삼고 그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다그치며 그것을 현실에 적극 도입하여 실지 은이 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를 선진교육국으로 전변시키는것은 공화국정부앞에 나선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고 하시면서 당의 교육중시, 인재중시정책을 지침으로 하여 사회주의교육의 새로운 발전기를

열어나갈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교원력량을 잘 꾸리고 교육의 질을 보다 높이기 위한 내용과 체계, 방법을 적극 탐구적용하며 세계교육발전추세에 맞게 대학교육을 강화발전시키는 것을 항구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더 많은 개발창조형의 인재, 실천형의 인재들을 양성하는데 대하여서와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들과 대학생들의 장학금을 올려주는 문제들에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우리 사회주의국가에 있어서 전체 인민의 건강증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보건제도를 마련하는것은 한시도 소홀히 할수 없는 중요한 과업이라고 하시면서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높은 수준에서 축성하고 의료봉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결정적대책을 세울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인민들과 후대들의 운명, 정신문화생활을 책임지고 옳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사명을 지닌 공화국정부는 마땅히 문학예술과 출판보도, 체육사업을 시대와 현실, 인민의 요구와 지향에 맞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한 당면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공화국정부는 사람들의 의식상태와 변화된 환경에 맞게 일군들과 근로자들, 자라나는 새세대들속에서 공산주의도덕교양, 집단주의교양을 방법론있게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고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현시기 공화국정부가 최대로 중시하고 완벽성을 기하여야 할 사업인 방역대책을 더욱 강화하는데 대한 사업을 밝히시였다.

우리의 방역체계를 보다 믿음성있고 발전된 방역으로 이행시킬데 대하여 언명하시면서 방역규정과 질서를 지키는 사업이 대중자신의 사활적인 요구로, 생활습관으로 되게 하여 대중적인 방역분위기와 전사회적인 자각적일치성을 계속 유지하며 나라의 방역기반을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고 비상방역사업에서 인민성을 철저히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문제들을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방위력을 강화하는것은 주권국가의 최우선적인 권리이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존립과 발전은 국가방위력의 끊임없는 강화를 떠나서 절대로 생각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공화국무력을 백방으로 다지며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방건설목표들을 철저한 실천으로 판철할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강화하며 시대적요구에 맞게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 우리의 정치사상진지, 계급진지를 백방으로 다질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인민정권기관들이 자기의 본분에 맞게 모든 활동을 인민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무로 일관시

키고 인민의 의사와 요구, 리익을 실현하는데로 지향시켜나가며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배치되는 사소한 현상과 요소에 대하여서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정권기관 일군대렬을 당성, 혁명성, 인민성이 높고 사업을 대담하게 혁신적으로 전개해나갈수 있는 실력가들로 꾸리며 정권기관들의 기구와 사업체계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여 우리의 인민정권이 사회주의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키는 정치적무기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방도적문제들을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의연 불안하고 엄중한 경색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현북남관계와 조선반도정세에 대하여 개괄평가하시고 현 단계에서의 대남정책을 천명하시였다.

지금 남조선에서 우리 공화국을 《견제》한다는 구실밀에 각종 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이 로골적으로 벌어지고있고 우리를 자극하고 때없이 걸고드는 불순한 언동들을 계속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남조선당국이 계속 미국에 추종하여 국제공조만을 떠들고 밖에 나가 외부의 지지와 협력을 요구하는데만 급급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얼마전 남조선이 제안한 종전선언문제를 론한다면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불씨로 되고있는 요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적대적인 행위들이 계속될것

이고 그로 하여 예상치 않았던 여러가지 충돌이 재발될수 있으며 온 겨레와 국제사회에 우려심만을 안겨주게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종전을 선언하기에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판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되어야 한다는것이 우리가 계속 밝히고있는 불변한 요구이며 이것은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도 선결되어야 할 중대파제이라고 언명하시였다.

북남관계악화의 원인들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방치했으며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는 남조선당국의 태도를 지적하시고 지금 북남관계는 현 랭각관계를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대결의 악순환속에 계속 분열의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심각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하시면서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밝히시였다.

남조선당국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대결적인 자세와 상습적인 태도부터 변해야 하며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민족자주의 립장을 견지하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려는 자세에서 북남관계를 대하며 북남선언들을 무게있게 대하고 성실히 리행하는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최근 미국과 남조선이 도를 넘는 우려스러운 무력증강, 동

맹군사활동을 벌리며 조선반도 주변의 안정과 균형을 파괴시키고 북남사이에 더욱 복잡한 충돌위험들을 야기시키고있는 데 대하여 주시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미국과 남조선의 강도적론리에 맞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런 위험한 흐름을 억제할 우리의 부동한 입장장을 철두철미 견지하며 필요한 모든 강력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해나가는가 아니면 계속 지금과 같은 악화상태가 지속되는가 하는것이 남조선당국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는데 대하여 다시금 명백히 상기시킨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남조선에 도발할 목적도 이유도 없으며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다고, 남조선은 북조선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망상과 심한 위기의식, 피해의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경색되어 있는 현 북남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고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온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단 10월초부터 관계악화로 단절시켰던 북남통신련락선들을 다시 복원하도록 할 의사를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현 국제정치정세를 분석하시고 대외사업부문이 다사다난한 외부적환경에 더욱 주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데 대하

여 밝히시였다.

오늘 세계가 직면한 엄중한 위기와 도전들은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보다 근본적인 위험은 국제평화와 안정의 근간을 허물고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강권과 전횡이며 미국의 일방적이며 불공정한 편가르기식대외정책으로 하여 국제관계구도가 《신랭전》구도로 변화되면서 한층 복잡다단해진것이 현 국제정세변화의 주요특징이라고 볼수 있다고 분석하시였다.

새 미행정부의 출현이후 지난 8개월간의 행적이 명백히 보여준바와 같이 우리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위협과 적대시정책은 여전히 달려있다는데 대하여 다시금 명백히 상기시킨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남조선에 도발할 목적도 이유도 없으며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다고, 남조선은 북조선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망상과 심한 위기의식, 피해의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지나지 않으며 력대 미행정부들이

추구해온 적대시정책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대외사업부문에서 현 미행정부의 대조선동향과 미국의 정치정세전망, 급변하는 국제력량관계를 호상련관속에 엄밀히 연구분석한데 기초하여 공화국정부의 대미전략적구상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전술적대책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할데 대한 사업을 제시하시였다.

대외사업부문에서 더욱 불안정해지고있는 국제정치정세와 주변환경에 주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우리의 국권과 자주적인 발전리익을 철저히 수호하기 위한 사업에 주되는 힘을 넣을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켜나갈것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전체 인민들은 공화국을 참된 삶의 품으로 여기고 자기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다고 하시면서 하늘같은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간직한 제일 귀중하고 값진재부이며 이 믿음에 보답하는것은 이 나라 수천만 공민들앞에 지닌 우리들모두의 가장 신성하고 영광스러운 의무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위대한 인민앞에 무한히 충실하며 최대의 노력으로써 자기의 무거운 사명과 책임을 다할것이라는 철석의 의지를 엄숙히 표명하시고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구호높이 위대한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하여 힘차게 일해나아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3돐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열병식 성대히 거행



지난 9월 9일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3돐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열병식이 성대히 거행되었다.

9월 9일 0시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 신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열병광장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인 조용원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인 김덕훈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박정천동지가 주석단에 등단하였다.

당파 정부의 간부들과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 책임일군들, 무력기관 책임일군들, 공화국의 강화발전에 특출한 공헌을 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으며 당파 정부에서 오랜 기간 사업하여온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김경옥동지, 김정임동지가 초대되었다.

국기계양식이 엄숙히 거행되고 축포가 터져 올랐다.

《빛나는 조국》의 노래주악과 함께 21발의례포가 발사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리일환동지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3돐을 경축하는 오늘의 장엄한 열병식은 공화국의 아들딸들이 사랑하는 어머니조국에 드리는 가장 숭고한 경의이며 온갖 도전과 난관을 용감히 이겨내고 자기 힘으로 위대한 조국의 력사를 창조한 승리자들의 대행진이라고 말

하였다.

그는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축월의 마음을 담아 우리 조국과 인민의 존엄과 영광을 찾아주시고 한평생을 다 바쳐 빛내여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으며 우리 국가의 모든 승리의 상징이시고 위대한 존엄의 대표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우리 당과 국가는 전대미문의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자립, 자위의 기둥을 더 억척같이 박으며 주체의 길, 사회주의의 길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는 공화국이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해나가는 자주의 성새로 위용떨치고 있는 것은 인민의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굴함없는 투쟁과정에 쟁취한 귀중한 승리이라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고귀한 투쟁으로 지켜내고 떨쳐온 우리식 사회주의를 끝없이 빛내이며 우리 국가제일주의기치아래 모두가 굳게 단

결하여 공화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해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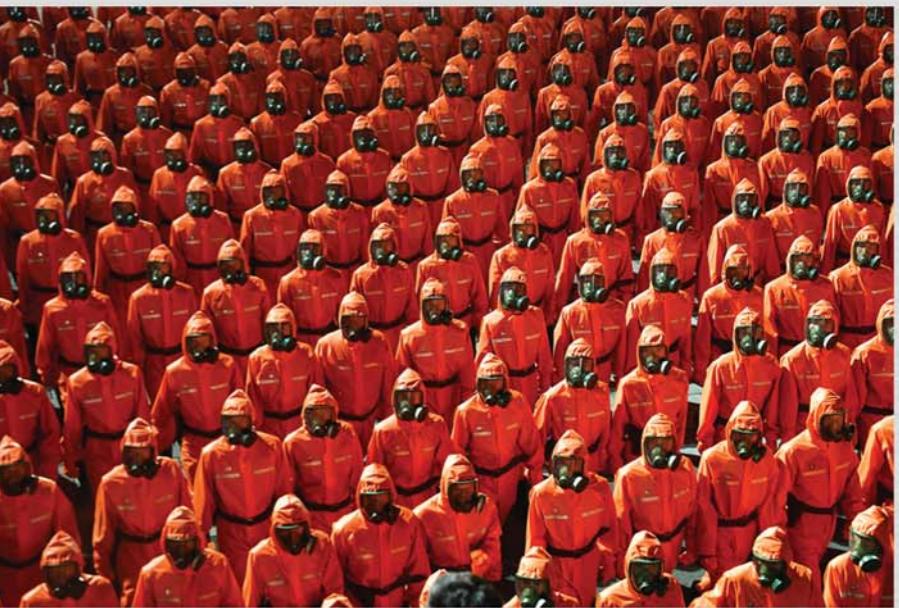
연설에 이어 민간 및 안전무력의 장엄한 열병행진이 시작되었다.

로농적위군 사령관의 지휘차를 따라 평양시당원사단종대가 선두에 서고 그뒤를 따라 수도의 민방위무력인 평양시로농적위군종대와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자강도, 강원도로농적위군종대를 비롯한 각 도의 로농적위군종대들이 힘찬보폭을 내짚었다.

그뒤로 철도성, 고려항공총국열병종대가 행진해가고 북방의 대야금기지인 김책제철

련합기업소와 새 세기 산업혁명의 발단을 열어놓은 회천련하기계공장, 홍남비료련합기업소,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에 힘있게 이바지하고 있는 공장, 기업소열병종대들이 광장을 힘차게 누벼나갔다.

이어 세계적인 대재앙으로부터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철통같이 지켜가는 비상방역종대, 보건성





종대가 행진해 가고 그뒤를 따라 국가과 학원종대, 문화예술인종대, 체육인종대, 김일성종합대학종대, 김책공업종합대학 종대와 붉은청년근위대종대가 광장을 활보해갔다.

민간무력종대들에 이어 사회안전군종대, 사회안전군특별기동대종대, 군경수색종대가 광장을 힘차게 행진해갔다.

일당백혁명강군인 인민군대와 함께 당 중앙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당 제8차 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역사적진군을 무장으로 굳건히 담보해나가고 있는 미더운 사회안전군 장병들에게 관중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이어 로농적위군의 기계화종대들이 자랑찬 진군화폭을 펼치였다.

한몸이 그대로 불사조가 되고 육탄이 되어 인민의 생명재산을 굳건히 지켜갈 열의로 충만된 사회안전군 소방대종대가 열병식마감을 장식하였다.

열병식이 끝나고 또다시 경축의 축포가 터져오르는 속에 김일성광장에서는 청년

학생들의 야회가 시작되었다.

《김정은장군께 영광을》, 《뵙고싶었습니다》 등의 노래가 울려퍼지는 야회장에는 청년들을 애국의 냇과 혁명정신을 지닌 사회주의건설자로 키워 시대와 혁사 앞에 자랑스럽게 내세워주시는 자애로운 원수님을 모시고 공화국창건일을 성대히 경축하는 청춘들의 무한한 궁지와 행복이 넘쳐흘렀다.

일심단결로 강하고 자력으로 부흥하는 우리 국가의 영광찬란한 혁사와 불패의 위상을 파시하듯 장쾌한 축포들이 연해 연방 터져올라 흥겨운 원무를 이어가는 청년 학생들에게 희열과 랑만을 더해주었다.

불세출의 위인을 우러러 터치는 다함없는 칭송의 노래 《인민의 환희》의 선률에 맞추어 열정의 춤물결이 끊없이 설레이고 천변만화하는 형형색색의 불보라가 눈부신 화광을 발산하는 속에 야회는 절정을 이루었다.

야회 및 축포발사가 끝나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우러러 터치는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뒤흔들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군중에게 오래도록 손저어주시며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조국과 인

민에 대한 불같은 사랑과 희생적인 헌신으로 전면적인 국가부흥의 새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만방에 빛내여가시는 만고절세의 영웅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3돐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열병식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자위의 굳건한 성새를 이룬 일심일체의 참모습과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의 노도와 같은 전진기상을 힘있게 표시하였다.

*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을 축하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9월 8일 공화국창건 73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만나시고 따뜻이 축하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과 조국에 대한 충성의 일편단심을 지니고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애국의 열정과 성실한 노력을 다 바쳐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고 있는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뜻깊은 9월의 경축행사장에 불러주신데 이어 성대한 연회를 마련해주시는 대해 같은 은정

을 베풀어주시였다.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자애로운 어버이의 사랑 속에 인생의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한 자리에 초대된 참가자들의 무한한 감격과 환희가 당중앙 위원회뜨락에 뜨겁게 감돌고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어머니조국을 위해 응당 해야 할 일을 한 자기들의 삶과 투쟁을 조국과 인민앞에 가장 값높이 내세워주시는 총비서동지를 결정의 눈물속에 우러르며 《만세!》의 환호를 터치고 또 터치였다.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주체조선특유의 국위이고 국풍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가사보다 국사를 먼저 생각하고 궂은일, 마른일 가림없이 한몸을 내대며 조국의 큰짐을 하나라도 덜기 위해 헌신분투하는 애국자들이 많은것은 우리 당과 국가에 있어서 커다란 힘과 고무로 된다고 하시면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에 이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본부청사 정원에서 성대한 경축연회가 진

총비서동지께서는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의 손을 반갑게 일일이 잡아주시며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에 공헌한 궁지와 사랑을 안고 공화국창건일을 맞이하는 그들을 축하해주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의 성스러운 애국의 력사속에는 지켜선 일터와 초소마다에서 근로의 땀을 뿌리며 나라의 재부를 늘이고 과학과 문화전선의 선두에서 조국의 영예를 떨치며 사회주의문명의 개화기를 열어나가는데 크게 공헌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의 공적이 진하게 승배여있다고 치하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억센 기상은 애국열의에 불타는 우리인민의 영웅적투쟁의 고귀한 결정체이라고 하시면서 엄혹한 격난을 세대와 세기를 이어 끓고 헤치며 백번을 일떠서고 천번을 솟구쳐 올라 사랑하는 조국을 떠받드는 강의한 인민의 불요불굴의 투쟁이야말로 이 세상

행되었다.

최룡해동지, 조용원동지, 김덕훈동지, 박정천동지를 비롯한 당파 정부, 군부의 간부들이 로력혁신자, 공로자들과 뜻깊은 자리를 같이하였다.

연회에서는 축하연설이 있었다. 자애로운 어버이를 모시고 한식술의 정을 나누며 꿈같은 행복의 시간을 보내는 참가자들의 격정과 환희가 연회장에 차넘쳤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공업, 농업, 과학, 교육, 보건, 체육, 문화예술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 말건 충성파 애국의 길에 한생을 묵묵히 바쳐가는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몸가까이 불러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사업성과를 따뜻이 헤아려주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국가의 초석으로, 대들보로 귀중히 여기는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이 자신들의 삶의 지향과 꾸준한 실천으로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가꾸고 온 나라에 혁명열, 애국열을 고조시키는데서 기수가 되고 열원이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참가자들이 우리 공화국의 힘과 존엄을 더욱 키우고 부흥강국의 미래를 앞당겨오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수행에서 보다 혁혁한 위훈을 렇쳐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였다.

학습파 소년단조직생활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인 평범한 근로자들의 자녀들도 몸가까이 불러주신 총비서동지께서는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과 함께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 초대된 소년단원들이 참으로 기특하고 대견하다고 하시면서 자식들을 나라의 훌륭한 역군으로 키워가는 부모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부어주신 뜨거운 육친의 정과 크나큰 믿음을 한생토록 잊지 않고 끊임없이 전진비약하는 위대한 김정은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힘있게 추동하는 참다운 애국자, 열혈충신으로 삶을 빛내여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었다.

* * *



수도의 거리들을 통파, 평양시민들 열렬히 환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3돐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열병식 참가자들이 9월 9일 평양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수도의 거리를 통파하였다.

력사적인 당 제8차대회 결정관찰을 위한 보람찬 진군길에서 영광스러운 우리 국가의 창건일을 성대하고 특색있는 열병식으로 경축한 열병대원들을 축하하기 위해 떨쳐나선 시민들과 청년학생들로 거리들은 흥성이였다.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조국수호의 강위력한 전투대오로 장성강화된 주체적민간 및 안전무력의 혁명적기상과 정규화적면모를 힘있게 파시한 열병대원들에게 보내는 시민들의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혈연의 정이 불야경을 펼친 거리마다에 차넘치였다.

공화국기와 꽃다발을 흔들며 미더운 열병

대원들을 고무격려하는 군중들의 얼굴마다에는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마치와 낫, 붓과 총대로 믿음직하게 밟들어가는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에 대한 크나큰 자긍심이 어려있었다.

평양시당원사단 열병대원들은 당중앙의 호소를 피끓는 심장에 받아안고 피해복구전투장들에서 창조한 투쟁정신과 기풍을 오늘의 총진군길에서 더욱 높이 발휘해나갈 철석의 의지를 굳게 가다듬었다.

뜻깊은 공화국창건일을 열병의 힘찬 발구름소리와 무적의 동음으로 장식한 궁지에 넘친 열병대원들을 창전네거리의 불밝은 집집의 창가마다에서 시민들이 뜨겁게 손저어주며 축하하였다.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성스러운



길에서 혁명의 붉은 방패로 위력떨치는 사회안전군 장병들이 부르는 혁명군가가 환영의 웨침과 함께 수도의 거리들에 울려퍼지였다.

열병광장을 누비던 그 기세, 그 용맹으로 자립경제의 쌍기둥을 여척으로 떠받드는 성돌이 되여 사회주의건설의 획기적전진을 추동해나갈 드높은 열의가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김책제철련합기업소, 흥남비료련합기업소의 열병식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 차넘치였다.

군중들의 열렬한 환호는 멀적의 기상이 서린 강철포신을 추켜들고 기운차게 전진하는 기계화종대들이 지나는 거리들에서도 터져올랐다.

우리 당의 자위적군사로선의 생활력과 인민방위무력의 위력을 파시한 기계화종대의 열병대원들을 향하여 군중들은 열정적으로 꽃다발을 흔들었다.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창건된 력사의 그날로부터 60여년의 장구한 기간 무적의 전투대오로 장성강화되어 조국수호와 사회주의건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여온 혁명적민간무력에 대한 환영의 열파는 9월명절의 환희와 격정을 더해주었다.

* * *

어머니당, 심부름군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여

주체100(2011)년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때로부터 10년세월이 흘렀다.

한 나라의 역사에서 10년은 결코 길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나날 조선로동당은 명실공히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어머니당, 심부름군당으로 강화발전되었다.

어머니당, 심부름군당.

바로 이 아홉글자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당건설 10년령도사가 비껴있다.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어머니당

어머니란 말은 믿음과 사랑, 은혜로움과 다정함, 친근함의 대명사이다. 사람들은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어머니를 생각하며 가장 귀중하고 자애로운것을 어머니와 결부시켜 부르고 있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태여났으며 창건된 때로부터 70여년간 조건의 유리함과 불리함에 관계없이 이민위천, 인민대중제일주의리념에 언제나 충실히 하여왔다. 붉은 기록에 인민을 소중히 감싸안고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들며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분투하여왔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하늘처럼 여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듯이 받아들여나가야 한다는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전당에 주체의 인민관이 꽉 들어차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기풍이 확고히 지배되도록 정력적으로 령도하시였다.

당건설을 령도하시는 첫 시기부터 그이께서는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것을 모든 사색과 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일군들이 인민의 복무자로서 자기 사명을 다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대동강반의 류경원과 문수물놀이장, 개간된 평양기초식품공장과 산골군의 창성각, 함경북도의 동해기슭에 솟아난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어촌의 단풍마을, 야영소를 비롯한 여러곳을 찾으실 때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들이 좋아하는가, 무엇보다 인민들이 편리해야 한다, 인민들이 많이 찾아오게 하여야 한다, 인민들을 위한것인데 무엇을 아끼겠는가,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고 절절히 말씀하시 군 하시였다.

만경대유희장, 평양자라공장을 비롯한 여러 곳을 찾으시여서는 일을 쓰게 하지 못한 일군들을 호되게 비판하시며 그들의 인민에 대한 그릇된 복무관점에 경종도 울려주시였다.

이렇게 그이께서는 인민이 기뻐하면 그 기쁨을 같이 나누시였고 인민이 아파하면 그 아픔을 같이 겪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언제나 인민을 생명의 뿌리로 여기시고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로 당과 인민대중의 협연의 뉴대를 새로운 높은 경지에 올려세우시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력사적정식화를 준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 조선로동당 제7차, 제8차대회,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와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를 비롯하여 여러 대회들을 지도하시며 전당에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당풍이 더욱 철저히 확립되도록 하시였다.

지난 6월에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를 지도해주시면서 우리 당이 신성하게 내세우고있는 위민헌신의 리념은 실지 뼈를 깎고 살을 저미면서 인민의 생명과 생활을 책임지고 무조건적인 복무로 인민을 받드는 실천의 지침이고 행동의 기준이라고, 당이 어려운 때일수록 인민들속에 더 깊이 들어가 든든한 기둥이 되여주고 늘 결에서 고락을 함께 하며 인민의 복리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해야 한다고 절절히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 《인민대중에 대한 멸사복무는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를 비롯한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도 발표하시여 우리 당을 참다운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강령적지침들을 마련해주시고 당이 인민을 위해 정을 다하는 혁신의 당, 변함없는 어머니당으로 자기의 성스러운 사명을 다해나가도록 이끄시였다.

인민을 제일로 여기는 조선로동당의 손길아래 시련과 난관이 겹쳐드는 속에서도 이 땅에는 인민을 위한 훌륭한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르고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들과 사변들이 일어났으며 어디서나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되였다.

어머니당, 이 부름은 그 어느 사상가나 정치가, 로동계급의 수령이 정식화한 말이 아니라 조국인민들 스스로가 불러준 조선로동당특유의 명예칭호이고 명함이다.

인민의 심부름군당

조선로동당이 인민을 위하여 궂은일, 마른일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는 심부름군당으로 되는 것, 이것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당건설사상, 당건설리념이다.

그이께서는 우리 당이 진정한 인민의 심부름군당으로 되여야 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면서 어머니는 자식앞에서 스승이나 웃사람이기 전에 심부름군이라고 할수 있다고, 어머니는 자기 자식의 요구라면 무조건적으로 군말없이 다 받아들이며 거기에 바쳐진 자기의 노력과 수고에 대하여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것이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이 하나와 같이 지니고있는 속성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어머니, 그 부름은 가식없는 사랑과 정, 무한한 혁신의 대명사이다.

격동속에 흘러온 조국의 한해한해는 우리 당이 인민의 심부름군당으로 그 성격과 면모를 부단히 완성하면서 최상의 높이에 도달하기 위하

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완강하게 투쟁해온 행로이기도 하였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찾으시는 단위들마다에서 일군들에게 인민을 위해 혼심을 다 바칠데 대하여 절절히 당부하신 그이께서는 이 땅의 그 어디나 위민헌신의 자욱을 새기시였다.

삼복철무더위에 옷자락을 땀으로 적시시면서도 뜨겁게 달아오른 온실을 찾으시였고 위험천만한 시험운행작도를 타시고 아득한 정점에도 오르시였으며 몸소 운전대를 잡으시고 재해지역에 자욱을 새기기도 하시였다.

자연재해를 당하여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았은 수재민들을 찾아 하늘길, 배길, 진탕길을 헤치시며 피해지역에 나가시여 그들을 위로도 해주시고 피해복구대책도 세워주신 그이이시였다.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가 피해를 받았을 때에는 국무위원장 예비량곡과 전략예비물자까지 해제하여 보장해주시였으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안착시키는 사업을 당중앙위원회 부서들과 본부 가족세대들이 전적으로 맡아하도록 하시였다.

이 나날 수재민들은 군당청사에서, 일군들은 천막에서 생활하는 일화도 생겨났다. 예상치 못했던 돌발적인 위험들이 련이어 들이닥쳤던 지난해에만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지도밑에 인민들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문제들이 심도있게 토의된 중요당회의만도 그 얼마나 모른다.

그이께서는 전당이 위대한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며 일군들이 인민의 참된 충복, 심부름군이 되도록 요구성을 높이시였다.

그이의 멸사복무의 결음결음은 전당을 새로운 각오, 새로운 출발, 새로운 투쟁열로 들끓게 하였다.

인민이 주인의 권리행사를 행사하고 당이 어머니가 되고 심부름군이 되여 멸사복무, 위민헌신의 의무를 다하는 나라, 조국에서 인민의 모든 꿈과 희망은 나날이 이루어질것이다.

인민의 신뢰를 받는 당으로

조국인민들은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로 부르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조선로동당에 대한 인민의 두터운 신뢰가 담겨져 있다.

조선로동당이 인민의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안은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되도록 이끄신 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이다.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위대한 장군님의 천품이시였으며 당건설과 당활동의 출발점이였다.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는 나날에 그이께서 쌓으신 업적에 대한 이야기들은 오늘도 인민들의 심금을 뜨겁게 달구어주고 있다.

언제인가 명절날밤에 있은 일이다.

한 일군이 위대한 장군님께 모든 사람들이 잠든 명절날밤에도 장군님께서만은 휴식하지 않고 밤을 지새우시는가고 말씀올리였다.

그때 그이께서는 인민들이 깊은 잠에 들었을 때 그들을 위해 애쓰며 일하다가 남먼저 새날을 맞이하는 멋이야말로 우리 혁명가들이 맛보게 되는 기쁨이라고 하시며 한밤을 꼬박 밟히시였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위해 좋은 일을 하나라도 더 할수 있을가 하는 문제를 두고 사색을 염두에 가시며 밤을 지새우시였고 새날을 맞으시여서는 인민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

그이이시였다.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정치에서 기본을 이룬다.

그이께서 제시하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에는 어머니가 자식을 극진히 사랑하고 돌보듯이 당을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세심히 보살피는 진정한 향도자, 보호자로 만드시려는 그이의 숭고한 뜻이 담겨져 있다.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 하며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이 그이의 지론이며 인민의 리익과 행복을 위해서는 타산을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그이의 계산방법이였다.

그이의 이런 인민에 대한 사랑의 정치가 있어 조국땅 곳곳마다에서는 전설같은 이야기들이 수없이 생겨나게 되었다.

조선서해의 날바다에 떠내려가는 한 생명을 위해 비행기들이 날고 두메산촌 몇명의 아이들을 위해 통학렬차, 통학빠스가 달리는가 하면 평범한 로동계급을 위하여 선진의료설비들을 그쪽하게 갖춘 병원이 일어서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하여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모든 당일군들이 진정으로 어머니다운 심정을 가지고 인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도록 요구하시였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어느 날에 있은 일이다.

어느 한 대회참가자들의 명단을 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파오를 범하였던 오랜 지식인이 참가자명단에서 빠진것을 아시게 되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어머니들은 자식들중에 누가 잘못을 저지르면 엄하게 추궁하지만 맛있는 음식이나 좋은 옷감이 생기면 빼놓지 않는다고, 사람이 살아가느냐면 파오도 범할수 있는것인데 문제는 그 파오를 시정하기 위하여 어떻게 노력하는가 하는데 있는것이라고, 당일군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머니다운 심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해야 한다고 절절하게 일깨워 주시였다.

또 언제인가는 일군들에게 나라없던 지난날 아홉남매를 키우느라 언제 한번 먹을것도 제대로 못먹고 제대로 걸치지도 못하고 한생 손끝에서 피가 마를새없이 일하다가 숨진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며 일군들이 이런 어머니의 사랑과 진정으로 우리 인민모두를 보살펴주는것이 자신의 요구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이런분이시기에 일군들이 인민을 위해 좋은 일을 하였을 때에는 그리도 기뻐하시였고 인민의 리익을 조금이라도 침해하였을 때에는 추호의 용서도 모르시였다.

언제인가 미국의 명망있는 종교지도자가 공화국을 방문하고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북조선에 가서 전도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구신

위민천선의 나날에

진정을 바치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가 진행되던 때의 일이다.

그이께서는 당파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 세포의 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당세포비서들의 사업에서 기본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정치사업을 잘하여 사람들을 불러일으키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자면 자식을 위해 오만자루의 품을 들이는 어머니처럼 사람들에게 진정을 바쳐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가르침을 받아안으며 대회참가자들은 그이의 숭고한 뜻대로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생사를 같이하며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참된 일군이 되리라는 맹세를 다지였다.

우리 당이 잘한 일

지난해 9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피해복구한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새로 일떠선 농촌마을을 바라보시면서 그이께서는 이렇게 짧은 기간에 흔적도 없이 털어버릴수 있는가고, 마치 다른 세상을 보는것만 같다고 하시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을 돌아보시면서 깨끗하면서도 아담하게, 안팎으로 손색이 없이 잘 건설했다고 인민군군인들의 노력을 거듭 평가해 주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이곳 강북리의 주민들, 농장원들이 좋아하는가고 거듭 물어보시고나서 그

들이 좋아한다니 정말 기쁘다고, 그들이 좋다고 한다면 분명 우리 당이 잘한 일이라고, 오래간만에 또 한번 가슴이 뿌듯하고 발걸음이 가벼워진다며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그리시면서 이곳 주민들이 새 마을과 살림집에 정을 불이고 부디 행복하게 잘살며 이 고장에 언제나 복이 깃들기를 바란다고 축복도 해주시였다.

묘주는 우리 당이라고 하시며

주체102(2013)년 7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완공단계에 이른 조국해방전쟁 참전렬사묘를 찾으실 때였다.

문주를 보아주신 그이께서는 형상이 특색있게 잘되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당기와 공화국기를 형상한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1950》, 《1953》이라는 글까지 새겨넣으니 여기가 전쟁에 참가한 혈사들의 묘라는것이 시각적으로 잘 안겨온다고 하시였다.

그리시면서 인민군렬사들이 우리 당의 품, 공화국의 품에 안겨 영생하는 삶을 누리게 되었다고, 옛날부터 묘에는 묘주가 있는데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희생된 유명무명의 인민군렬사들의 묘주는 우리 당이 되여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후 전승절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 이곳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가렬한 전쟁의 포화속에서 혁명의 고귀한 정신적유산을 마련한 1950년대 조국수호자들의 불멸의 공훈은 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렬사들에게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 * *

약성경 66권은 모두 인간을 사랑하라는 설교를 담고있다. 그 런데 그 나라에서는 인간사랑이 국책으로 실시되고 있다.

러한 나라에 성경책이 무슨 필 요가 있겠는가.》

업적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해 더욱 빛나고 있다.

김윤정

양어발전의 새 역사를 열어놓으시여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고 많은 강과 호수, 저수지가 있는 조국의 자연자리적 조건은 수산업 발전의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지난 기간 조국에서는 양어를 장려하여 수산업의 튼튼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축적하였다.

양어의 과학화, 집약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메기공장, 미꾸라지양어장을 비롯한 전문 양어기지들이 각 도마다에 현대적으로 꾸려지고 강과 호수들에서 이동식 그물우리 양어장들이 대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바다양어가 유리한 수역들에 인공배양기지들과 그물우리 양어장들이 일떠서고 과학적인 종어체계가 세워져 련어, 철갑상어, 조기, 명태, 가재미, 열대붕어를 비롯하여 각이한 어종의 종자물고기 확보와 새끼물고기 생산 및 방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도 각 도, 시, 군들은 물론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도 지역적 특성에 맞게 양어장들이 꾸려져 있어 이채로운 물고기 풍경을 볼 수 있다.

조국의 이러한 현실은 인민들의 식생활 문제를 놓고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신과 로고를 떠나 생각할 수 없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평양메기공장을 찾으시였다.

당시 공장은 생산능력에 비

해 물고기 생산량이 매우 낮은 상태에 있었다.

실태를 료해하신 그이께서는 그 원인의 하나가 공장의 일부 일꾼들이 양어를 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달라붙지 않은데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양어는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해 절대로 중단할 수도 양보할 수도 없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 하시였다.

이어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먹일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공업적인 방법으로 물고기를 생산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양어를 과학화, 집약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밝혀주시고 평양메기공장을 우리 나라 양어부문의 본보기, 표준공장으로 일떠세우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풀어주시였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주체 104(2015)년 2월 24일에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수산부문을 추켜세우고 수산업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를 발표하시여 양어부문 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명시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로작에서 양어장을 정비보강하고 현대화하는 한편 양어장을 더 많이 건설하고 양어의 과학화, 집약화 수준을 높일 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그이의 현지지도와 양어부문에 주신 말씀은 그대로 온 나라에 양어열풍이 세차게 타번지 게 한 원동력으로 되었으며 양

어의 과학화, 집약화 실현의 지침으로 되었다.

그 후 주체 104(2015)년을 분기점으로 조국의 메기양어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다.

평양메기공장이 홀륭히 일떠서고 그를 본보기로 평안남도와 황해북도를 비롯한 전국의 여러 도들에 현대적인 메기양어 기지들이 꾸려지고 생산이 활성화되어 인민들이 그 덕을 보게 되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메기양어뿐 아니라 양어업의 세계적 추세로 되고 있는 바다양어의 밝은 전망도 열어놓으시였다. 주체 104(2015)년 5월 어느 한 대서양 련어종어장과 바다 련어 양어 사업소를 찾으신 그이께서는 조선동해의 날바다에 전개된 그물우리 양어장들과 금방 잡아낸 대서양 련어를 보시고 정말 대단하다고, 사회주의 조국의 바다에 희한한 선경, 청춘어장이 펼쳐졌다고 만족해 하시였다.

이 날 사업소에서 련어 양어는 물론 민물에서 사는 칠색 송어를 바다에 순응시켜 길러내는 성과를 이루한 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양어와 양식의 전망과 미래는 바다로 나가는데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온종일 걸었으나 힘든 줄을 모르겠다고, 바다 련어 양어를 틀어쥐고 근기있게 내밀면 얼마든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그토록 기뻐하시였다.

그이의 현지지도 이후 조선동서해지구의 여러 수산사업소들에서는 명태, 가재미 등 각이한 어종의 종자 물고기 확보와 새끼 물고기 생산 및 방류 등 바다 양어의 과학기술적 토대가 강화되었다.

이동식 그물우리 양어의 발전에도 그이의 령도의 자욱이 어리여 있다. 대동강에 설치된 이동식 그물우리 양어장을 찾으시여서는 수심에 따라 서식 장소



가 서로 다른 물고기들의 특성을 이용하여 그물우리들에 기념어, 통정어, 잉어, 조개 등을 총총이 배치한것을 보시고 이동식 그물우리양어는 인민들에게 안겨줄 물고기문제를 푸는데서 커다란 예비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가르침심을 받들고

그후 각 도, 시, 군들에서는 평양시에서처럼 실정에 맞는 이동식 그물우리양어장을 꾸려놓고 이채로운 양어풍경을 펼쳐놓았다.

진정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양어발전에 기울이신 그이의 헌신의 세계는 끝이 없다.

하다면 그이의 령도의 밀바

탕에는 무엇이 자리잡고있는 것인가.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이다. 주체107(2018)년 8월 삼천메기공장을 찾으신 총비서동지께서는 물고기비린내가 짙 들어찬 습한 랭동저장고에서 랭동된 메기들을 보시며 마치도 금괴를 쌓아놓은것만 같다고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주게 될 기쁨이 얼마나 크시였으면 물고기들을 금에 비유하시였겠는가.

언제인가 물고기를 받아안고 기뻐하는 인민의 모습을 사진 속에서 보신 총비서동지께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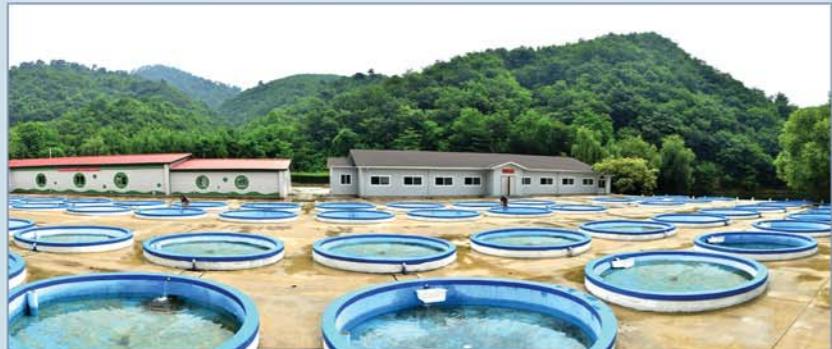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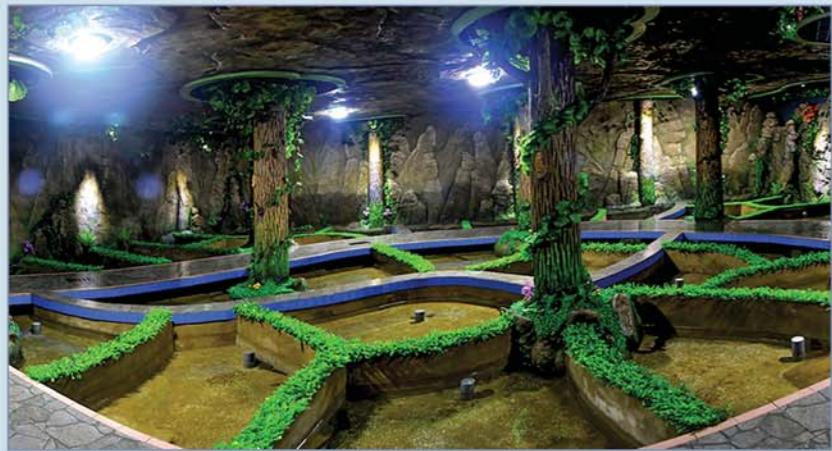
일군들에게 정말 이런 멋에, 이렇게 순간에 속이 한번씩 뭉클해오는 행복에 도취되어보려고 힘들어도 웃으며 투쟁속에 사는것 같다고 하시면서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바탕으로 힘과 용기를 모아 백배하여 일들을 더 잘해나가자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진정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모

든 정력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위민헌신이 있어 조국은 가까운 앞날에 양어의 나라로 전변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성경



조국의 도처에 양어장들이 일떠섰다.



메기 양어의 과학화



동평양화력발전소가 위치한 락랑구역 전진동에는 평양메기공장이 자리 잡고 있다.

발전소의 퇴수를 리용하여 메기생산을 공업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공장은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다.

공장은 선진기술을 받아들여 알깨우기로부터 살찌우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양어공정을 과학화, 집약화함으로써 적은 노력, 적은 면적을 가지고도 짧은 기간에 많은 메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계절적 영향을 받지 않고 1년내내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다.

공장의 종업원들은 최근 시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 정신을 받들고 메기생산을 늘이기 위한 방도를 양어의 과학화수

준을 한단계 높이는데서 찾고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공장에서는 100여개의 야외못과 30여개의 실내못을 가지고 있는데 맞게 물관리의 과학화에 힘을 넣고 있다.

공장의 실내 및 야외못들의 물온도, 폐하, 산소량 등은 통합생산체계에 의하여 실시간으로 측정조종되고 있다.

최근에는 과학적인 물분석 체계에 기초하여 생육상태에 따르는 합리적인 물갈이를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희 학생수 발생장치를 설치하고 미생물 복합균들을 침전탕크들과 못들에 넣어주는 방법으로도 수질을 개선하고 있다.

공장에서는 먹이소비기준

을 낮추고 메기의 사률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도 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공장에서는 메기사료에 첨가되는 면역강화제로 춤버섯을 리용하기 위해 그 배양공정을 확립한데 이어 단백곤충, 실지렁이, 큰단백풀, 단백초를 원료로 하여 사료를 양적으로 늘이면서 그 질을

높이고 있다.

공장의 기술일군들은 적은 사료로 영양가 높은 메기를 생산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단백배합먹이의 규격화를 실현하였다.

이밖에도 새끼메기용 배합먹이생산기술, 인공단핵발육방법에 의한 순계메기육종기술 등 많은 과학기술문제들을 해결하여 면적당 메기생

산을 높이고 있다.

기사장 홍순건은 《우리는 대용어분사료와 식물성단백질을 생산하기 위하여 국내에 흔한 천연재료로 각종 효소제, 첨가제들도 연구하였다.》라고 말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공장에서는 메기의 증체률이 높아져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물 1m³당 메기생산량을 1.5배로 늘일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지금 이렇게 생산된 메기들은 평양시안의 여러 급양봉사망들과 상업망들, 탁아소, 유치원들에 공급되고 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그물우리 양어장

조국에서 양어발전에 힘을 넣고 있다.

양어의 과학화, 집약화가 실현된 공장들이 일면서 좋은 경험과 성과가 일반화되어 각지에서 양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

자연수역에 위치한 곳들에서는 못양어의 범위에서 벗어나 그물우리양어를 적극화하고 있다. 어디서나 그물우리양어의 우월성은 나날이 표출되고 있다.

선교구역 그물우리양어사업소 양어공 리현순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물우리양어는 좋은 점이 많다. 그것은 일반양어못에 비해 수질에 대한 요구가 높지 않고 먹이는 절반으로 줄이면서도 적은 면적에서 립체 양어를 하여 물고기생산량을 늘일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강의 풍치를 돋구어주어 보는 사람들에게 이채로운 정서를 더해주고 있다.』

오늘 그물우리양어는 전국각지로 확산되고 있다.

산천어, 잉어, 농어, 쏘가리를 비롯한 수십 종의 물고기가 서식하는 대동강과 은어산지로 유명한 청천강에 많은 그물우리양어장을 설치되었다.

평양시에서는 이미 6년전부터 그물우리양어를 내밀어 대동강에 이동식그물우리양어장을 많이 띄웠다. 통합조종체계가 실현된 이동식양어장의 그물우리마다에서는 룽정어, 기념어, 화려어, 금전어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자라고 있다.

대동강양어 및 종어생산공급소에서는 지난해보다 그물우리양어장면적을 수백 m^2 더 조성하였으며 양어못, 새끼고기못 등을 개건하여 물고기생산을 활성화할 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대동강과 보통강의 풍치에 어울리게 이동식 그

물우리양어장을 짧은 기간에 꾸린 동대원구역, 선교구역, 평천구역 그물우리양어사업소에서는 수질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수질측정기구를 갖추어놓고 양어를 과학화하고 있다.

평안남도, 황해북도, 함경북도, 자강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도 이동식그물우리양어장을 건설하고 그 덕을 보고 있다.

올해에만도 전국적으로 그물우리양어장들이 계획보다 1만 6 000여 m^2 더 조성되었으며 양어의 과학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도 전진이 이루되었다.

덕천시그물우리양어 및 어로사업소, 청남군종어사업소에서는 동물성단백질먹이서식장을 꾸려놓고 단백먹이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며 물고기의 생육단계에 맞게 먹이주기를 과학화하고 있다.

각지 양어단위들에서도 뿔물등에서식장을 확장하고 효율적인 단백먹이생산방법으로 물고기기르기에 필요한 먹이를 자체로 생산보장하고 있다.

북창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평성석탄공업대학, 평성의학대학을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도 강파저수지들에 그물우리양어장을 조성해놓고 어종별특성에 맞는 앞선 양어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물고기의 증체률을 높이고 있다.

농촌들에서는 비료와 농약을 절약하면서도 지력과 알곡소출을 다같이 높이고 물고기도 생산할 수 있는 논판양어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부터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전진을 이루하기 위한 양어부문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열의는 대단하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성칠



새 무장력의 탄생

(진호에서 계속)

나는 진한장과 호진민의 손을 량손에 하나씩 갈라쥐고 사령의 방을 나섰다. 우리는 《승리요!》, 《대성공이요!》 하면서 온밤 성시의 둘레를 거닐었다.

호진민은 나에게 가치담배 한대를 권하면서 한번 연기를 삼켜보라고 하였다. 오늘같이 경사스러운 날에는 술에 취하든가 술이 없으면 담배연기에라도 취해보는것이 좋다고 하였다.

나는 처음으로 가치담배를 물고 연기를 삼키다가 숨이 막혀 오래동안 재채기를 하였다. 그 바람에 호진민도 웃고 진한장도 웃고 나도 웃었다.

『원참, 담배연기도 삼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빨찌산대장을 하나.』

호진민은 이런 통까지 하였다.

소사하에 돌아와 담판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하니 뒤클방에 배겨있던 동무들이 나를 목마에 태워가지고 밖으로 우르르 쓸어나갔다. 그리고는 온동네가 다 듣게 만세 삼창을 하였다.

명창으로 소문난 김일룡은 《아리랑》까지 불렀다. 흥겹고 생기발랄한 원무곡이나 씩씩한 행진곡을 불어야 할 그런 축제의 날에 강쇠같은 남아대장부 김일룡이 《아리랑》과 같

은 비가를 부른것은 상식밖의 일이였다.

김철(김철희)이 김일룡의 팔을 흔들면서 물었다.

『일룡형님, 이 좋은 날 하필 그런 노래는 왜 불러요?』

『모르겠다 모르겠어. 나두 모르게 〈아리랑〉이 쏟아져 나왔구나. 어쨌든 우리는 술한고비를 넘지 않았니.』

김일룡은 노래를 그치고 눈물이 글썽해서 김철을 돌아보았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숙연한 생각에 잠기지 않을수 없었다.

그의 말과 같이 우리는 이날을 위해 실로 얼마나 험한 시련의 고개들을 넘어왔던가. 김일룡의 한생은 그대로 그 시련의 축도라고 할수 있었다. 그는 독립군으로서 민족주의운동도 해보고 공산주의운동도 해본 사람이였다. 조선에서도 살아보고 만주에서도 살아보고 연해주에서도 살아본 풍운아였다.

우리는 우사령파의 담판에 성공함으로써 유격대의 존재와 활동을 합법화하고 우리와 협합하여 일제와의 항전을 벌릴 수 있는 동맹군을 가지게 되었다. 담판의 성공은 또한 우리에게 애국애족의 대의를 내세운다면 사상과 리념이 서로 다른 타국의 민족주의자들과도 통일전선을 뭇고 공동투쟁을 벌릴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하였다.

그 신심은 그이후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나의 정치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였다고 생각된다. 나는 사상과 리념이 다른 민족주의자들이나 복잡한 생활경력을 가진 자산계급출신

운명은 어떻게 되고 유격대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가. 나는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미 고인이 된 선생에게 말없는 감사를 드리군 한다.

우사령부대에서 담판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기뻐한 사람이 바로 류본초선생이였다. 그는 우리가 성시를 떠날 때 멀리 군영밖에까지 따라나와 이제는 서로 적이 아니라 형제로, 우군으로 되었다고 기뻐하면서 손을 굳게 잡고 일본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때려부시자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선생이 세상을 떠나시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안도성시에서의 잊지 못할 담판의 날과 육문중학교시절을 회상하면서 슬프게 울었다.

우리는 우사령파의 담판에 성공함으로써 유격대의 존재와 활동을 합법화하고 우리와 협합하여 일제와의 항전을 벌릴 수 있는 동맹군을 가지게 되었다. 담판의 성공은 또한 우리에게 애국애족의 대의를 내세운다면 사상과 리념이 서로 다른 타국의 민족주의자들과도 통일전선을 뭇고 공동투쟁을 벌릴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하였다.

그 신심은 그이후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나의 정치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였다고 생각된다. 나는 사상과 리념이 다른 민족주의자들이나 복잡한 생활경력을 가진 자산계급출신

의 각계각층 인사들을 포섭하는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주저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행동하는 일군들을 만나게 되면 우사령과 담판하면 경험을 상기하면서 그들의 도량을 넓혀주고 하였다.

소사하에 돌아온 나는 왕청지구에서 구국군공작에 고심하고 있는 리팡에게 우사령파의 담판내용과 조선인별동대가 조직되게 된 경위를 상세히 통보해주고 안도의 경험을 참작하여 왕청에서도 지체없이 별동대를 하나 조직할데 대한 과업을 주었다.

그때까지도 리팡은 지하활동을 하고 있었다. 나는 한개 중

대의 인원을 리팡에게 보내여 거기에서도 별동대를 조직해 가지고 지하활동으로부터 합법적인 활동으로 넘어가게 하였다.

별동대라는것은 조선사람으로 조직된 특별부대라는 말이다. 조선사람으로 조직된 부대가 구국군들과의 관계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한것은 우리와 리팡네밖에 없었다.

그때 우리가 별동대라는 이름을 가진것은 우리 유격대의 합법적활동을 보장하며 구국군과의 련계를 강화하고 그들과의 반일련합전선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전술적조치였다고 말할수 있다.

우리는 별동대를 내온 다음 그것을 확대하고 재편성하여 빠른 시일안에 반일인민유격대

를 나오기 위한 준비사업을 활기있게 다그치였다.

대오를 편성하는 사업은 여러가지 론쟁을 동반하였다.

그때 어떤 동무들은 유격대 대렬내에 로동자성분이 적은것을 가지고 몹시 우려하였다.

100여명이나 되는 입대대상자들을 조사해보니 대부분이 학생출신과 농민출신들이였다. 이 실태에 놀란 몇몇 동무들이 로동자성분이 적은것은 혁명군대를 조직하는데서 맙스-레닌주의원칙을 위반하는것으로 되지 않는가, 그것은 또한 장차 혁명군의 변질을 가져올수 있는 요소로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견해를 표시하였다.

나는 그런 견해에 대해 로동계급이 혁명군의 주구성성분으로 되어야 한다는것은 맑스-레닌주의군사학의 일반적원리이다, 그러나 이 원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농민이 주민의 압도적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로동계급은 농민에 비해 수적으로 매우 적은 상태에 있다, 그렇다고 로동계급의 수자가 많아질 때까지 유격대창건을 뒤로 미루고 기다릴수는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농민이나 학생출신도 다 로동계급 못지 않게 혁명의식이 높고 민족성이 강하다, 출신이 달라도 로동계급의 사상을 가지고 싸우면 된다, 농민이나 인테리출신이 많은것이 혁명군이 변질될 요소

로는 되지 않는다고 진지하게 깨우쳐주었다.

우리는 지휘체계를 세우는데서도 기존공식을 절대시하지 않고 유격전쟁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구령을 치는 사람보다 구령을 집행하는 싸움군을 많이 내는 방향에서 대오를 짜고 편제들을 결정하였다. 말하자면 지휘체계를 고도로 단순화하였다.

그러므로 부대에 후방부서나 그것을 주관하는 지휘관도 따로 두지 않았다. 모두가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싸움도 하며 때에 따라서는 정치공작도 할수 있게끔 준비시키였다.

그때 우리에게 클라우제위쯔의 《전쟁론》과 같은 책이라도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은 계시를 받았겠는가. 당시의 우리 수준이란 그저 부대편성에서의 3.3제는 나쁠때옹이 창시한것이라는 정도의 상식에 머무르고 있었다. 클라우제위쯔에 대해서는 이름이나 알 정도였다.

나는 2차 세계대전때에야 클라우제위쯔의 《전쟁론》을 처음으로 입수하였다. 지휘체계를 단순화하여 싸움군을 많이 내도록 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나를 쉽게 공감시킬수 있었다.

반일인민유격대는 중대를 기본전투단위로 하여 조직되었다. 나는 대장 겸 정치위원으로 선거되었다.

유격대의 군복은 가죽나무

물을 들인 룩색천으로 지었다. 왼쪽가슴에는 다섯모가 난 붉은천을 오려붙이고 거기에 중대번호를 써넣었다. 군모에는 붉은별을 달기로 하였으며 다리에는 흰 행전을 치기로 하였다. 유격대 창건의 마지막세 부작업이라고 할수 있는 복장제도를 하나하나 마무리지어나 가기란 참으로 가슴흐뭇한 일이였다.

우리가 진지하게 토의하고 결정한 복장제도에 따라 부녀회원들이 떨쳐나서 군복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때 어머니는 시름시름 앓으면서도 부녀회원들과 함께 온갖 정성을 기울여 군복을 마련기도 하고 재봉침을 돌리기도 하였다.

우리는 1932년 4월 하순 안도에서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직하기 위한 최종회의를 소집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입대지망자들에 대한 마지막심사와 함께 유격대결성식날자와 장소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당면한 활동지역을 확정하고 유격대의 활동과 관련된 전반적 대책을 수립하였다.

이 회의후 입대지망자들은 3도백하의 입구인 류가분방(발재둔)에 모였다가 소사하에 집결하였다. 입대지망자는 100여명이었는데 그들중 지금 까지 이름이 기억되는것은 차광수, 박훈, 김일룡(소사하), 조덕화(소사하), 품보(별명, 소사하), 조명화(소사하), 리명수(소사하), 김철(김철희, 흥룡촌), 김봉구(흥룡촌), 리영배(흥룡촌), 꽈○○(흥룡촌), 리봉구(삼인방), 방인현(삼인방), 김종환, 리학용(국내), 김동진(국내), 박명손(연길), 안태범(연길), 한창훈(남만)밖

에 없다.

1932년 4월 25일 아침 우리는 토기점골등판에서 반일인민유격대의 창건식을 가지였다.

이깔나무숲으로 둘러싸인 등판의 공지에 새 군복을 떨쳐입고 무기를 휴대한 대원들이 구분대단위로 정렬하였고 그 공지의 한쪽면두리에 소사하와 흥룡촌일대의 인민들이 모여서 술렁대고 있었다.

대원들의 생신하고 틈틈한 모습을 정겹게 바라보는 내 눈앞에는 가지가지의 회억들이 구름처럼 떠올랐다. 이 무장대오의 결성을 위하여 우리의 동지들이 길은 얼마나 걸었고 모임은 얼마나 가졌고 연설은 얼마나 하였고 준령은 얼마나 넘었으며 그 과정에 가슴아픈 희생은 얼마나 당하였던가. 반일인민유격대는 수많은 동지들의 눈물겨운 로고와 피어린 투쟁과 희생의 대가로 이루어진 우리 혁명의 고귀한 산아였다.

나는 이날을 보지 못하고 희생된 동지들과 고인들을 토기점골등판에 모두 불러오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가슴에 차넘치는 결정을 터뜨려 연설을 시작하였다.

내가 반일인민유격대의 창건을 선포하자 대원들은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 인민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만국로동계급의 전투적명절인 5월 1일 우리 반일인민유격대는 붉은기를 앞세우고 안도현성에 입성하여 나팔을 불고 북을 두드리면서 보무당당히 열병행진을 하였다.

반일인민유격대의 지휘관으로 임명된 김일룡이 이날의 행진에서 노래선창을 담당하였다.

그날은 시민들뿐아니라 반일

부대 장교들과 병사들까지 거리에 떨쳐나와 엄지손가락을 흔들며 환영의 인사를 보내고 축하의 박수를 쳐주었다.

무력시위를 끝낸 대오가 토기점골로 돌아왔을 때 차광수와 김일룡이 우리 집으로 달려가 몸져 누워있는 어머니를 데려왔다.

병고에 시달린 얼굴, 미간에 생긴 주름살, 머리의 흰머리, 그러나 어머니의 눈은 고요히 웃고 있었다. 어머니는 리영배의 곁에 다가와 총이며 탄띠며 오각별을 오래오래 만져보았다. 그다음 김철, 조덕화, 김일룡, 방인현, 차광수의 앞을 거닐면서 이 총도 쓸어보고 저 총도 쓸어보고 이 어깨도 만져보고 저 어깨도 만져보고.

미구에 어머니의 눈이 서서히 젖어들었다.

『정말 장하구나. 우리 군대가 생겼으니 이제는 됐다. 왜놈들을 치고 나라를 꼭 찾아야 한다!』

음성도 펴그나 젖어있었다. 어머니는 분명 우리에게 바친 자신의 지성은 까마득하게 잊고 조국광복을 기원하며 먼저 떠나간 아버지와 애국지사들의 로고에 대하여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후 연길, 왕정, 훈춘, 화룡을 비롯한 동만의 다른 지방들에서도 유격대들이 련이어 조직되었다. 김책, 최용진, 리홍광, 리동광 등 조선의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북민과 남만에서도 유격부대들이 련이어 태여나 적들에게 포문을 열었다.

1932년의 봄은 항일대전의 총성속에서 무르익어갔다.

(끝)

공화국창건 73돐에 즈음하여 해외동포들이 다채로운 경축행사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3돐에 즈음하여 해외동포들이 경축행사들을 진행하였다.

길림육문중학교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9일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중조선인녀성협회, 길림지구협회 길림시지부, 재중항일혁명투쟁연고자 황백하가족, 길림지구협회 부회장 홍영순가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최수봉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제1부의장을 비롯한 총련합회 일군들이 심양주재 우리 나라 총령 사관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작품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재중조선인녀성협회, 재중조선인청년협회, 료녕지구협회 단동시지부 일군들은 단동주재 우리 나라 대표부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백경현 중남지구협회 회장을 비롯한 협회와 베이징시지부 일군들은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을 찾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3돐을 맞으며 경축좌담회를 가지였다.

여기에는 최수봉제1부의장, 차상보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 겸 연변지구협회 회장, 리순남부의장, 김영녀부의장을 비롯한 총련합회일군들과 한성옥회장을 비롯한 재중조선인청년협회 회원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부회장들이 참가하였다.

좌담회에서 발언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이 우리 민족의 반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인민대중중심의 주권국가건설의 새 기원을 열어놓은 역사적사변이었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인민정권건설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으며 해방후 진정한 인민정권을 세우시고 공화국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고 그들은 격찬하였다.

그들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의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고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우리 인민의 후손만대의 행복을 담보하는 참된 삶의 요람을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은 조국청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재중동포들이 사회주의조국을 받드는 애국사업을 줄기차게 벌려나가도록 이끌어주고 계신다고 하면서 그들은 그이께서 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굳은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새로운 승리를 이루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들의 본분을 다해나갈 굳은 결의들을 표명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연변지구협회와 목단강지구협회에서도 경축모임을 비롯한 다양한 경축행사들을 진행하였다.

로씨야고려인통일련합회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3돐에 즈음하여 모스크바에서 경축모임을 진행하였다.

로씨야고통련 일군들과 성원들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파의 친선 및 문화협조로씨야협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파의 국제적련대성그루빠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로영진 모스크바시고려인통일련합회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심으로써 조선인민은력사상 처음으로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당당한 주인으로 되었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조국은 사회주의강국으로 되였다고 그는 격찬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오늘 우리 조국은 경제건설과 국방력강화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여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가장 큰 영광을 드린다고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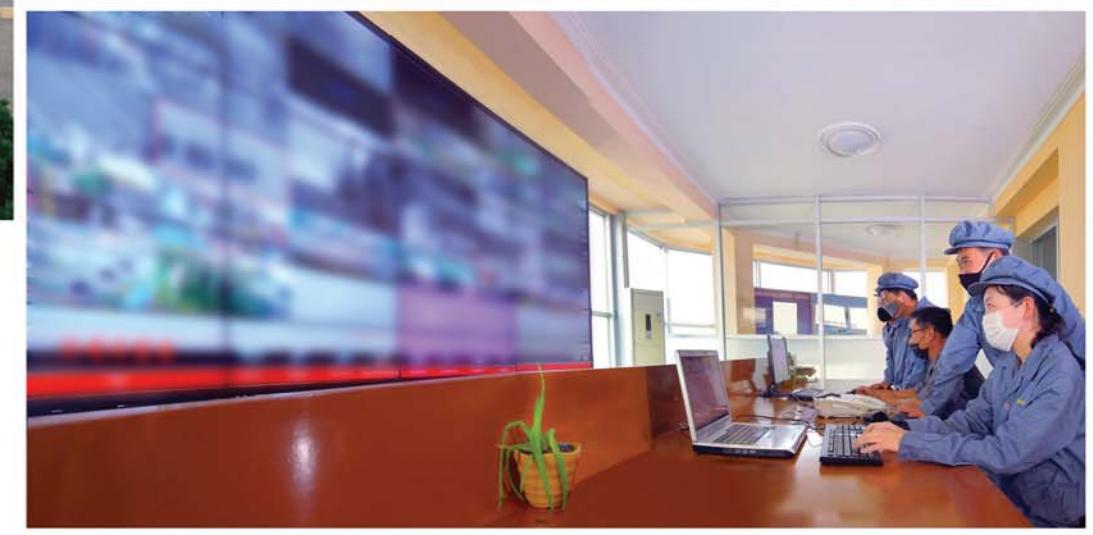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른 나라들의 기성리론과 경험에 구애됨이 없이 자주적립장에서 인민의 나라를 세울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고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인민정권건설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다고 그들은 격찬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들을 련이어 창조하고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과학기술이 공장의 발전을 견인



최근년간 평양건재공장에서는 타일, 위생자기, 수지창, 인조대리석생산기지 등 전반적 생산 공정들의 자동화를 실현하고 경영활동의 정보화를 추진하여 생산능률과 제품의 질을 보다 높일 수 있게 하였다.

최현주지배인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를 계기로 살림집건설이 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살림집건설에 필요한 마감건재를 원만히 보장하자면 공장이 생산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 선차적인 문제가 원료, 자재의 국산화이다. 이를 위해 공장에서는 자체의 연구력량을 강화하면서 새 기술도입을 선차적으로 밀고나가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공업기술연구소의 연구사들이 공장의 발전을 견인해 나가고 있다.

조명옥소장을 비롯한 연구사들은 타일의 백색도제고에서 필수적으로 쓰이던 원료를 국내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공처리방법을 확립한데 이어 규조토에 의한 새로운 물유리제조방법을 연구완성하여 국내원료에 의

거한 건재품생산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연구사들은 최신파학기술을 받아들여 위생자기모형가공의 CNC화를 실현하여 위생자기모형을 100% 국산화하였으며 선진적인 인쇄도안장치도 개발하여 제품의 다양화, 다종화, 다색화실현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공장에서는 모든 종업원들이 참가하는 대중적 기술혁신운동도 힘있게 벌리고 있다. 결과로 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이 제고되고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이 창안도입되어 건재품의 기술적지표들이 부단히 개선되고 있다.

현재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올밀대》상표를 단 타일, 위생자기, 수지창, 인조대리석, 칠감, 방수판 등 여러 품종의 건재품들은 날로 높아지는 건축미학적요구에 맞게 견고성과 다양성, 시공의 편리성이 보장되어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을 비롯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살림집건설에 널리 리용되고 있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스승과 제자들



제자의 학위론문을 지도하고 있는 강영호(왼쪽)

얼마전 우리는 황해북도양묘장을 취재하는 과정에 림업성 책임부원 리금철을 알게 되었다.

그때 그는 나라의 산림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리용하는데 필요한 정보체계의 정확성을 현지에서 확인하고 있었다.

리금철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우리는 뜻밖에도 그에게서 자기의 스승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였다.

《예로부터 밥 한술에 힘되는 줄은 몰라도 글 한자에 힘이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대학을 졸업한지 벌써 8년이 되어오지만 지금도 어려운 과학

기술적문제에 부닥칠 때면 우리 선생님을 제일먼저 찾아가 조언을 받곤 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리금철의 스승은 김일성종합대학 지구환경과학부 정보지도학강좌 교원인 후보원사 교수 박사 강영호이다.

강영호는 주체69(1980)년 12월 김일성종합대학 지리학부(당시)를 졸업하고 측지지도학강좌(당시) 교원으로 사업하는 첫 시기부터 지도를 어떻게 하면 자동적으로 쉽게 그리겠는가 하는 문제를 탐구하였다고 한다.

강영호는 강좌장으로 사업하던 시기에 강좌안의 모든 교원

당시의 지도작업을 컴퓨터로 할수 있는 자동처리기술을 연구하였다.

이에 토대하여 지도학분야에서는 새로운 전진이 이룩되었고 강좌의 명칭도 정보지도학강좌로 바뀌였다.

그는 1990년대 말에는 학부에 지리정보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실을 내울것을 발기하고 지리정보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그후에는 새로 발족된 지구공간정보학분과심의위원회 성원으로 활동하였다.

강영호는 강좌장으로 사업하던 시기에 강좌안의 모든 교원



가정을 찾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강영호

를 잊지 못해하고 존경하며 따르고 있다.

언제인가 강영호의 한 제자가 박사론문을 집필할 때에 있은 일이다.

그는 제자의 박사론문이 과학리론적으로 원만히 집필될 수 있도록 수년간이나 늘 결에서 연구사업을 도왔다. 논문은 완성되었지만 그것이 인민경제 해당 부문에서 생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높이에 이르지 못한 것을 인식한 그는 과학자의 량심을 안고 제자와 함께 여러 단위들에 나가 현지에서 극복방도를 탐구하고 모색하여 끝끝내 성과를 거두도록 해주었다.

그가 바로 지금 강좌장으로 사업하고 있는 전혁철이었다.

김형직사범대학 자원환경과학부 교원 홍희성도 《처음 교단에 서니 스승의 모습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소탈하면서도 다심하신 우리 선생님처럼 저도 제자들을 나라의 기둥감들로 키우는데 밀거름이 되고 싶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스승과 제자들, 진정 우리는 강영호와 제자들의 관계를 단순히 지식을 배워주고 배우는 사제관계로만 볼 수 없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김금진
주체108(2019)년 촬영

관심을 모으는

《학봉》의약품들

국내의 이름있는 의약품들과 나란히 《학봉》 상표를 단 의약품들이 구매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천연약재로 제조된 의약품들은 치료주기가 짧고 효과가 뚜렷하며 치료과정에 다른 장기에 아무런 부정적영향을 주지 않는것으로 하여 사람들 속에서 환영을 받고있다.

항산화작용과 인체의 면역기능을 높여주는 마늘나노은결핵주사약이라든가 비만과 변비에 특효인 황금방풍비만교감약, 호르몬장애를 개선시켜주는 유채꽃전위선비대싸락약 등은 공장의 얼굴이라고 할수 있는 특허제품들이다. 의약품들은 평양시 만경대구역에 위치한 학봉제약공장에서 생산되고있다.

지배인 김창일은 『우리는 개발한 약품들에 대한 수많은 림상검토과정에 아무리 좋은 약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체질에 맞아야 자기의 효능을 최대로 발휘할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확증하였다.

국내의 토양에서 자라는 천연약재로 제조한 고려약만큼 우리 인민들의 체질에 맞는 약재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였다.

주체101(2012)년에 창설된 공장은 짧은 기간에 GMP의 요구에 부합되게 생산토대를 그흔히 갖추고 약품의 연구개발과 생산, 판매를 종합적으로 실현하였다.

공장에서는 수십정보의 약초밭을 새로 조성하고 도라지, 감초, 방풍, 궁궁이, 삽주 등 많은 약초들을 재배하고있다.

개성고려인삼을 비롯한 약초들을 주원료로 하고 최신기술과 전통적인 제조법을 활용하여 개발된 공장의 약품들은 국내에서 진행된 여러차례의 과학기술축전과 전시회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공장에서는 홍삼차와 백산차, 경우차 등 건강식품개발에도 힘을 넣고있는데 특히 백산차는 약효가 높은것으로 하여 인기를 끌고있다.

공장은 자체의 연구집단에 의거하여 보다 발전적인 전망을 열어놓으려 하고있다.

국내의 원료로 효능높은 고려약들을 더 많이 개발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자는것이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글 본사기자 김리정, 사진 본사기자 김춘혁



조선의 첫 2중올림픽우승자



김일

《만약 내가 경기마감 30초를 버티여내지 못하였다면 아마도 승패는 달리되었을것이다. 나는 나에게 두번째 우승의 기쁨을 안겨준 그 순간을 잊을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렘스링협회 서기장으로 사업하고 있는 김일은 오늘도 주체85(1996)년 7월 미국의 애틀란타에서 진행된 제26차 올림픽 경기대회 자유형레스링 48kg급경기에서 아르메니야선수와의 대결을 가장 인상깊게 추억하고 있다.

5:4로 1점 앞선 상태에서 김일은 그만 심판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앉은레스팅에 들어가게 되었다. 경기형세는 불리했으나 그는 순간도 주저하지 않고 강한 정신육체적 힘을 발휘하여 끝끝내 상대를 이기고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이날의 우승은 그가 1992년 제25차 올림픽 경기대회에 이어 두번째로 거둔 올림픽우승이였다.

당시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은 『북조선의 김일선수 두번 연속 패권』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세계최강이라는 평판대로 그의 경기기술은 훌륭했다. 김일선수에게 패한 아르메니야선수도 <다리를 휘감아 회전하는 기술이 훌륭했다.>라고 감탄하였다.

김일은 <다음번에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패권

을 쥐겠다.>라고 말하였다. 강했던 4년전처럼 그의 온몸에서는 자신심과 의욕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김일이 렘스링을 배우기 시작한 것은 소년시절 부터였다.

부모들은 5남매중 막내인 김일이 남달리 머리가 총명하여 내심 과학자로 키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기대와는 달리 김일은 렘스링에 발을 들여놓았다.

아들의 선택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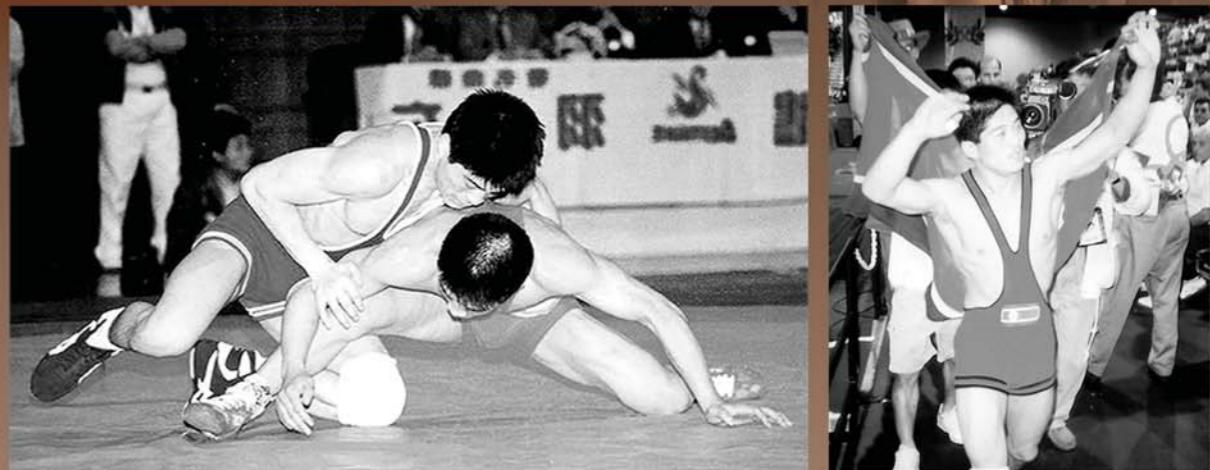
아버지도 일단 발을 들여놓은 이상 꼭 성공해야 한다며 아들의 결심을 지지하였다.

선수생활 초기부터 김일의 경기성적은 전문가들의 주목을 끌었다.

육체기술적 능력을 부단히 높이는 한편 독특한 다리싸움수법과 반공격하여 뒤돌아잡기기술 등 여러 가지 특기기술을 완성한 그는 많은 국내경기들과 국제경기들에서 두각을 나타내였다.

그는 세계청년자유형레스링선수권대회(1991년)와 제8차 아시아자유형레스링선수권대회(1992년) 48kg급경기에서 1등을 하였으며 그후 제25차 올림픽경기대회(1992년) 자유형레스링 48kg급경기에서 1등을 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련속 우승을 쟁취하였다.

그의 경기성과는 또다시 제26차 여름철올림픽 경기대회의 우승으로 이어져 조선의 첫 2중올림픽우승자로, 세계에서 공인된 렘스링명수로 부각되었다. 그후 국제경기에서 그만 오른쪽어깨의 심한 부상으로 다음번 우승을 이루하지 못하였으나 그는 세계적인 선수후비육성에 자기의 심혼을 다 바치였다.



제25차, 제26차 올림픽경기대회 자유형레스링 48kg급경기들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김일

그는 렘스링협회 서기장으로 사업하면서 2중세계선수권보유자인 양경일, 세계선수권보유자인 윤원철, 박영미를 비롯한 이름난 렘스링선수들을 배출하였다.

50살을 가까이하고 있는 그는 올림픽우승자를 키워낼 목표를 내세우고 자기의 모든 사업을 지향시켜나가고 있다.

그는 오늘도 국가종합팀선수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곤 한다.

《경기승패는 한순간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한순간은 평시의 백날, 천날에 기울인 성실한 땀과 열정의 산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글 본사기자 김성경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주체108(2019)년 촬영

100 살은 꿈이 아니다



손자들과 함께 있는 신장렬할머니

얼마전 우리는 또 한명의 100살장수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평양시 중구역 동성동에 있는 신장렬할머니의 집을 찾았다.

말딸인 김옥환(72살)녀성이 우리를 반겨맞으며 할머니의 방으로 안내하였다.

방에 들어서니 할머니는 창가에 있는 화분들에 물을 주고 있었다.

문안인사를 하는 우리를 본 할머니는 웃음을 지으며 자리를 권하는것이였다. 할머니의 몸은 비록 체소하였지만 매우 건강해보였다.

말딸의 말에 의하면 어머니의 일파는 화분들에 물을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화분들을 가꾸는것은 어머니의 마

음을 짚게 하는 정서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하였다.

건강상태에 대해 묻는 우리의 말에 할머니는 《나는 눈이 밝아 아직도 안경을 끼지 않고 신문도 보고 바느질도 합니다.》라고 하면서 3년전 눈치료를 받던 때의 일을 이야기하였다.

눈이 밝던 할머니는 언젠가 부터 앞에 허상이 생기면서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날 진료소담당의

사

실을 알고 즉시 할머니를 조선적

십자종합병원으로 후송하였다.

할머니는 이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에서 100살은 결코 꿈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한다는것이 당시 의사들의 한결 같은 심정이였다고 한다.

하여 할머니는 수술을 받았고 인츰 밝은 눈으로 대지를 다시 보게 되었다. 100살이 되었어도 젊음에 넘쳐있는 할머니의 일파에는 딸과 함께 산보를 하는것과 함께 증손자의 글공부를 방조하는 즐거운 시간도 있다.

할머니는 남새와 물고기를 즐겨 먹군 한다고 한다.

신장렬할머니의 100살장수의 비결은 섭생도 규칙적으로 하고 사람들과 어울려 생활을 언제나 락천적으로 하는데 있었다.

이와 함께 할머니의 건강을 위한 많은 사람들의 성의와 지성도 장수의 보약이였다.

김옥환녀성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어머니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다섯남매를 낳아키우는 육친적인 사랑을 기울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가 나이가 들수록 동파 구역안의 의사선생님들이 정기적으로 찾아와 건강검진을 해주고 치료대책도 세워주고 있으며 구역의 정권기관 일군들과 인민반주민들이 어머니에 대해 관심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또 얼마전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100번째 생일을 맞는 어머니에게 은정어린 생일상까지 보내주시였습니다.

이런 고마운 제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감동을 금할수 없는 목소리였다.

할머니는 이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에서 100살은 결코 꿈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침상에서 창작한 80여편

『나의 삶을 사회에 유익한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있는가.』라고 자문해보며 창작활동을 벌리는 작가가 있다.

그는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량철수(65살)이다.

태여나 백날만에 중병을 만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이지만 그는 굳센 의지로 침상에서 후대들을 위한 작품을 창작하고있다.

『의학적견지에서 볼 때 진행성근위축증으로 앓는 사람은 스무살도 넘기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주는 65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원고지에 글을 썼습니다. 점차 손이 말을 안듣고 시력도 나빠지자 침상에서 저에게 불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창작한 작품이 80여편은 됩니다. 그가 병마와 신고를 하면서도 의지에 불을 달아 글을 쓴것은 후대들에게 이 땅에 넘치는 사랑의 이야기를 전하고싶어서였습니다.』라고 그의 안해 김봉련은 말하였다.

량철수작가는 나라없던 그 세월 일제를 반대하는 싸움에 나섰던 옛 독립군사령 량세봉선생의 손자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신과 연고관계가 깊은 량세봉사령의 손자(량철수)를 두번이나 만나주시였으며 그의 생활을 보살펴주시였다.

나라에서는 팔다리를 쓰지 못하고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를 위해 전용승용차를 보내주었다.

집파 병원에서 전반적무료의무교육을 받던 그는 학교에서 동무들과 나란히 앉아 공부하게 되였고 소년단조직생활과 파외활동에도 참가하게 되

어린 독자들과 함께 주체99(2010)년 촬영



작품창작에 전념하는 량철수

였다.

중학교시기에는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야영소와 명승지를 비롯하여 그가 가보지 않은 곳이 없다.

그나날 그는 조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따뜻한가를 절감하게 되였으며 이러한 체험들이 축적되여면 후날 그의 창작적밀천으로 되였다.

그후 그는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이 되였다. 17층 강의실에서 그는 동무들과 똑같이 공부를 했고 그들의 도움을 받으며 강의실에서 도서실로 향하군 하였다.

친형제와도 같은 동무들의 방조와 진정에 의해 그는 조선어문학부 창작학파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주체66(1977)년 10월에는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아동문학작가로 되였다.

처녀작인 단편소설 《영복이의 솜씨》에 이어 세계아동문학선집(조선편)들에 《낚시터의 불빛》, 《복받은 미래》, 《맑은 봄하늘》을 비롯한 단편소설들을 올렸으며 개인작품집들인 《희망의 날개》, 《계승》을 내놓았다.

전국의 꼬마독자들은 자기들의 생활을 눈에 방불히 펼쳐보이고 동무를 극진히 위해주는 내용을 류달리 잘 형상해내는 량철수작가를 무척 존경하고있다. 그러나 그가 장애자라는것을 아는 독자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

두 아들과 며느리들, 딸, 사위, 손녀들과 손자들을 거느린 가장으로 된 그는 오늘도 아동문학작품창작의 봇을 놓지 않고있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개성 있는 가구제작가

선교구역 비품제작소 소장 김춘혁은 가구전문가들속에서 창작적개성이 뚜렷한 제작가로 인정받고있다.

지난 시기 그가 창작하여 내놓은 가구제품들은 2019년 전국가구 및 마감건재부문 과학기술성과 전람회를 비롯한 여러 전시회, 전람회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의 창작품에서 특징적인것은 종자가 새롭고 다용도성과 편리성이 결합되어있으며 독특하면서도 세련된 미를 가지고있는것이다.

접으면 책상이 되고 펴놓으면 침대로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접이식종합가구, 여러 양상의 매달기식장식장들과 식탁의 크기를 손님수에 따라 조절하게 되어있는 변형식원형식탁, 3개의 꽃잎으로 펼칠수도 있고 하나의 잎모양으로 접을수 있는 민들레꽃아동책상을 비롯하여 그가 제작한 가구들은 다기능화되어있고 사용자의 편리에 따라 실내공간을 보다 최량화할수 있게 되여있다.

그는 최근 목재를 리용하는데서 무른 나무보다도 참나무와 같이 딱딱하고 굳은 목재를 선택하고있는데 그것은 재료가 굳을수록 모양과 무늬효과가 뛰여나기때문이라고 한다.

평양미술대학에서 나무공예를 전문으로 배운 그는 오늘 현실에서 자기의 창작적기량의 폭을

넓혀나가고있다.

그는 가구제작가일뿐아니라 손색없는 실내장식도안가이기도 하다.

살림집과 공공건물 등 건물의 내부장식을 특색있게 꾸미는데서 그는 남다른 특기를 가지고 있다.

그는 중구역 창전거리와 평천구역, 보통강구역 등 각곳의 봉사망들의 실내장식을 맡아하였는데 여러가지 재료로 바닥과 천정, 벽장식을 자연그대로의 느낌을 줄수 있게 설계하는 등 특색있는 도안들을 실현시켜 주문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그의 재능은 천성적인데도 있지만 남다른 창작적안목, 지칠줄 모르는 정열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독특한것을 좋아하는 그는 언제나 세계적인 가구제작추세에 민감하다.

일단 작품이 완성되였다고 해도 발전시킬수 있는 여지를 찾아 완벽하게 다듬기 위해 사색을 기울이는것이 그의 습관화된 창작태도이다.

그는 오늘도 진취적인 창작활동으로 각이한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가구창작에로 제작소집단을 이끌고있다.

글 분사기자 김성경
사진 분사기자 김금진



농업생물학자가 걸어온 길



강신호

농업연구원 농업생물학연구소 연구사인 박사 부교수 강신호(70살)는 주체92(2003)년 세포 공학적방법으로 새로운 벼품종을 개발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벼박사라고 부르지 않고 감자박사라고 부르고 있다.

감자박사, 그 호칭에는 감자종자의 무비루스연구에 지혜와 정열을 고스란히 바친 강신호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깃들어있다.

그가 감자종자의 무비루스연

구를 자기의 연구과제로 삼게 된데는 사연이 있다. 주체87(1998)년부터 조국에서는 산이 많고 부침땅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조건에서 감자농사에 힘을 집중하고 있었다.

농업생물학연구소 부소장을 하는 바쁜 속에서도 그는 무비루스감자원종생산체계를 세우는 연구사업에 착수하였다.

감자는 다른 작물에 비하여 병걸림률이 현저히 높다. 더구나 해마다 7월이면 감자역병과 장마철 피해로 감자농사에 난관이 조성되곤 하였다.

그는 감자종자의 무비루스연구를 목표로 내세우고 감자종자 생산공정들을 하나하나 료해하고 여러 문현들과 기술서적들을 탐독하면서 초행길을 개척해나갔다.

이 나날 소장으로 임명된 강신호는 행정사업으로 바쁘지만 연구사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조직배양단계에서부터 여러 공정들을 연구하면서 역병저항성이 강한 유전자를 찾기 위하여 탐구를 거듭하였다.

연구, 실험, 실패를 무수히 반복하며 그와 연구집단은 끝내 무비루스감자원종생산체계를 확립하였다.

그가 주체87(1998)년에 농업 대표단의 한 성원이 되어 일본

빛을 본데 대하여 연구사들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강신호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내였다.

강신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때까지 한순간의 주저와 동요를 모르고 달려 올수 있은 것은 한평생 인민들의 식생활문제를 위해 포전길, 농장길을 걸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이 나로 하여금 농업과학자의 길을 택하게 하였고 연구사업에서는 지칠줄 모르는 힘을 주었으며 든든한 마음의 기둥이 되여주었다.』

사업에서 만족을 모르는 그는 농촌지역들에서 발생하는 감자병들의 예방 및 구제방법을 확립하고 세균병진단시약을 개발하는데 기여하였으며 2권으로 구성된 『감자전서』라는 도서를 집필하는데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그는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진행하는 과학토론회들에 참가하여 조국에서 이룩한 농업과학 연구성과들을 발표하였다.

그가 주체87(1998)년에 농업 대표단의 한 성원이 되어 일본

에 갔을 때였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는 그 곳에서 자기를 배워준 기따오사까조선초중급학교(당시) 담임선생과 동창생들을 만나게 되였다.

담임선생은 그를 열싸안고 이렇게 말하였다.

『강선생, 33년전 일본을 떠나갈 때 앞날이 어떻게 될가 걱

정이 앞섰겠는데 이렇게 조국에 가서 농업과학자가 되고 한개 연구집단을 이끄는 큰 선생이 되였구만. 이 담임선생의 인사를 받아주오.』라며 거듭거듭 『강선생』이라고 제자를 높이 불렀다고 한다.

짧은 상봉이였지만 그날 강신호연구사는 자기에게 희망의 나래를 펴도록 해주고 김일성종합

대학에서 공부하도록 배려해준 조국의 고마움에 대하여 가슴부풀게 느껴보았다.

강신호연구사는 지나간 나날을 돌이켜보며 오늘도 농업과학 탐구와 후비 양성에 자기를 바쳐가고 있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금진

가족들과 함께



왔다.

조선절에는 때와 장소, 환경과 조건, 대상에 따라 웃음을 깊숙이 숙이는 형식, 절반정도 숙이는 형식, 고개만을 숙이는 형식이 있다.

조선절은 웃몸의 굽힘정도에 따라 웃사람과 아래사람에 대한 정중성을 나타낸다.

다시말하여 웃몸을 깊숙이 숙이는 것은 인사를 받는 사

람에 대한 최대의 정중성을 표시하는것이고 절반정도 웃음을 숙이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인사의 표시로 되며 고개만 숙이는 것은 인사에 대한 답례 또는 가까운 친구들 사이의 레절로 된다. 조선절은 웃사람과 아래사람, 대상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레절을 충분히 표시할수 있는 단정하면서도 고상한 인사법이다.

* * *

상식

조선절

세상에는 나라와 민족마다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여러가지 레범들이 있다.

그 가운데서 조선절은 고상하고 단정할뿐아니라 위생적으로도 깨끗하여 레절바른 인사법이라고 할수 있다.

조선절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거나 헤어질 때 허리를 굽히거나 머리를 숙여 존경과 축하, 안녕을 레절로써 표시하게 하였다.

우리 민족은 이러한 인사례법을 면 옛날부터 지켜

오늘의 성천

예로부터 성천이라고 하면 약밤, 담배가 유명하였다. 그러나 오늘의 성천군은 농업과 지방공업, 국토관리에서 모범을 창조해 가는 군들 중의 하나로 되고 있다.

성천군은 지리적으로 볼 때 깊은 끝짜기들과 비류강을 비롯한 크고작은 강하천들이 많으며 농경지의 60%이상이 산비탈로 되어 있다. 군의 자연지리적조건은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 생활을 높이는데서 다른 지역보다 불리하다.

하지만 군에서는 최근년간 이러한 자연지리적조건을 유리하게 전변시켜나가고 있다.

군에서 제일 선차적으로 힘을 넣는 것은 국토 관리사업이다.

사실 수십년전까지만 해도 이 고장 사람들은 강하천을 잘 다스리지 못하여 큰 물이 나면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하였다.

피해에서 교훈을 찾은 군에서는 먼저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군내인민들이 모두가 떨쳐나 완공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첫 공사에서 자기 힘이 제일이라는 것을 체험한 군주민들은 연 300여km의 하천들에 제방쌓기와 하천바닥파기, 수십만m³의 석축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창성이 깔나무, 잣나무와 같은 경제적수익성이 좋은 나무들과 밤나무, 도토리나무, 찔광이나무, 다래나무와 같은 산파일나무들로 산림을 새로 조성하는 사업을 넌차별로 해나갔다.

강하천을 다스리고 산림조성을 잘해나가니 군살림이 늘어났다. 수많은 토지가 환원복구되는 것은 물론 큰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품들여 조성한 산에서 해마다 생산되는 목재와 산파일, 산열매, 약초들은 군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 날 읍지구의 면모도 일신되었다. 군에서는 자기 고장의 행정구획을 산업구획, 살림집구획 등으로 나누어 새롭게 건설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데 기초하여 1단계로 살림집공사를 진행하여 지역적특성이 살아나는 수천세대의 살림집들을 새로 일떠세웠다.

제힘으로 자기 고향을 아름답게 꾸려나가려는 이곳 군일군들과 인민들의 드높은 지향은 농업과 지방공업도 힘있게 추동하였다.

지금 군안의 협동농장들마다에서는 알곡대 알곡을 위주로 하는 과학적인 세벌, 네벌농사 방법이 적극 도입되어 다수확농장원대렬이 늘어나고 있으며 독특한 맛과 향기가 나는 성천종 잎담배생산량이 그전에 비해 훨씬 높아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군안의 식료공장과 제사공장

등에서는 자체의 기술력량을 강화하고 그에 토대하여 설비의 현대화를 추진한 결과 생산장성과 제품의 질제고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규모도 크지 않고 종업원도 적은 군농기계작업소에서는 폐설물을 재자원화하여 런전기재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있다.

그뿐이 아니었다. 불과 몇 해 사이에 새로 세운 수십개의 학교들과 분교들, 덩치 큰 온실들의 모습은 보면 볼수록 자기 손으로 행복을 창조해 가려는 이 고장 사람들의 열의가 높다는 것을 느끼게 하였다.

이 고장 사람들이 지닌 애국의 마음은 군의 모습을 보다 새롭게 펼쳐놓게 될 것이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새로 입사한 살림집에서

성천발전소언제

성천국수집

성천제사공장

잎담배건조

전통명주와 그 양조가들



옛 명주들의 제조기술을 이어가는 김원범, 홍경숙부부

조국인민들속에서 옛 명주들(단군술, 평양문배술, 감홍로, 리강고, 계당술)에 대한 인기가 높아가고 있다.

전통주들은 그 맛과 향기가 독특할뿐아니라 건강에도 좋은 약리적 작용을 한다.

력사의 이끼속에 묻혀있던 민족의 옛 명주들, 이것을 되살린 주인공들은 평양시 평천구역에서 살고있는 김원범, 황경숙로인들이다.

술전문가들도 아닌 로인들이 민족의 전통명주들을 발굴완성한 소식은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내고 있다.

옛 명주들은 고조선때부터 조선봉건왕조시기까지 이어지다가 일제의 군사적 강점시기 민

족문화말살책동으로 하여 차츰 자취를 감추게 되였다.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 대외사업부문에서 일하고 있던 김원범은 한 로인에게서 예로부터 전해져내려오는 옛 명주들과 그 제조비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였다.

조선의 전통명주들 가운데는 민족의 원시조 단군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단군술이 있다. 술은 고조선시기(B.C. 30세기초-B.C. 108년) 평양 일대에서 사는 주민들이 아달산샘물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단군은 이 술을 제일 우수하게 여기고 《신기술》이라고 부르면서 즐겨 마셨으며 궁중의 행사때에도 리용하도록 하였다. 그 후 선조들은 이 술을 단군사당들에서 제를 지낼 때에만 쓰곤 하였다. 이밖에도 평양문배술, 감홍로, 리강고, 계당술이 조선의 명주로 이름났는데 이

단군술은 단군제상에 올리는 술로서 해외동포들 속에서 인기가 높다.



술들은 다 자기나름의 맛과 향기, 약리적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여 예로부터 건강장수약주로 일컬어왔다. ...

자기의 전공파는 너무도 거리가 먼 로인의 말을 원범은 흥미 있는 역사이야기로만 들었다.

그후 사업상용무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름난 술들을 맛볼 때마다 원범의 가슴속에서는 조국에도 세계의 명주들과 겨룰 수 있는 유명한 술이 있어야겠다는 민족적 자존심이 고개쳤으며 로인이 들려준 전통명주 이야기가 귀전에서 맴돌았다. 원범은 기어이 민족의 전통명주를 되살려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게 되였다.

이렇게 되여 그는 1990년대부터 안해 황경숙과 함께 옛 명주들의 전통적인 제조법을 찾아내기 위한 생소한 길에 나서게 되였다.

원범이 로인에게서 들은 비법이란 원료나 조성에 대한 것뿐이였고 구체적인 배합비율이나 제조공정은 없었다.

식료공업부문의 전문가도 아닌 그들에게 기초가 있었다면 원범이 소유한 4개 나라의 말과 안해의 화학부문의 전공지식이였다.

그들은 먼저 《림원십륙지》, 《고사집이집》, 《동국세시기》를 비롯한 문헌들에서 옛 명주들에 대한 자료들을 발굴, 고증하였다.

과거와 현대의 술제조력사와 기술을 습득하고 옛 명주들의 특성에 맞는 샘물원천과 좋은 원료를 찾는 등 조선민족고유의 술제조비법을 연구하는데 만도 여러 해가 걸렸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김원범로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술 하나에도 한 고장의 풍토가 비끼고 한 나라의 문화가 비끼며 한 민족의 삶이 비낀다. 전통주라면 응당 민족의 넋과 지혜, 재능이 담아지고 집대성되어 응축된 민족의 명주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런 생각으로 국보적 가치를 가지는 술제조비법을 발굴완성하는데 온갖 심혈을 기울이였다.』

하루에도 20~30번씩 술맛을 가늠해야 하기 때문에 남편은 그처럼 애호하던 담배까지 끊었다고 안해 황경숙은 웃으며 말하였다.

끊임없는 노력끝에 이들은 전통적인 술제조비법과 현대술제조기술을 배합하여 십여년만인 주체90(2001)년에 평양문배술을, 그후 련이어 감홍로, 계당술, 리강고의 제조비법을 발굴하였으며 주체103(2014)년에는 단군술의 양조기술을 완성하였다.

주체104(2015)년 평양의 단군릉에서 진행

된 개천절기념행사때 한세기만에 처음으로 제상에 오른 단군술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단군술을 맛보면서 해외동포들은 한결같이 맛과 향기가 독특하고 건강장수에도 리로운 이런 술은 보지 못했다고 하였다.

국가과학원 중앙실험분석소에서 전통주들을 분석한 결과 세계적인 명주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확증되었으며 국내외 술전문가들도 이 술들이 건강장수에 특별히 좋은 약주라고 평하였다.

이들의 술제조기술에서 특징적인 것은 반드시 수십년 지어 수백년의 역사와 가진 오지독에 담그어 숙성하며 특이한 종류설비를 이용한 것이다.

전통주들의 맛이 정말 훌륭하다고 감탄하는 사람들에게 김원범로인은 이렇게 말하곤 한다.

『술은 빚는 사람의 손맛에 따른다지만 결코 내 재간이 좋아서가 아니다. 명주들은 철저히 우리 민족의 뛰여난 슬기와 재능의 결정체이다. 전통명주를 발굴하는 과정에 우리는 민족의 우수성을 폐부로 절감하였다.』

이들이 찾아낸 전통명주들의 양조기술은 국가비밀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민족의 옛 명주들을 더 많이 발굴하여 내놓으려는 로인부부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글 본사기자 김성경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상식

혈전치료에 좋은 식품들

세 혈관의 탄성을 높여주고 분류성 동맥경화증을 치료하는데서 좋은 역할을 한다.

3. 차잎

차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은 인체의 항산화 능력을 높여 줄뿐 아니라 피 속의 콜레스테롤수치를 낮추고 분류성 동맥경화증을 예방한다.

4. 마늘

마늘에 들어있는 카프사이신은 축적된 지방을 제거하는 작용을 한다.

2. 가지

가지에 비교적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P는 모

* * *

역사유적유물을 보존관리하는 사람들

민족의 역사는 오랜수록 빛이 나며 유적유물은 원상대로 보존될수록 더욱 가치가 있다.

조선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가 깃들어있는 평양에는 우리 선조들의 슬기와 재능을 보여주는 오랜 건축물들이 적지 않다.

련광정, 대동문, 보통문, 평양종각, 을밀대 등 그 어느것이나 세기와 세기를 이어가며 애국으로 지켜진 국보들이다.

이러한 국보들을 보존관리해가는 사람들속에는 평양시 민족유산보호관리소의 종업원들도 있다. 그들속에는 공예사, 단청공, 관리원과 같이 각이한 직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언제 한번 자신들이 하는 일이 건물보수나 관리만 하는 단순한것이라고 생각해본적이 없다. 역사유적에 기와 한장을 올리고 단청무늬

하나를 채색해도 자기 민족의 역사를 지키고 빛내여가는 역사가의 한 사람이라는 자각을 안고있는 그들이다.

몇 해 전 대동강기슭에 자리 잡고있는 대동문의 단청을 보색할 때에도 그려하였다.

작업에 앞서 소장 김용철, 시공부원 홍철환은 대동문에 대한 역사자료를 먼저 연구하였다. 그들은 이 과정에 우리 선조들의 뛰어난 건축술과

일찌기 우리나라 목조건축에서 장식미술의 한 종류인 단청의 특성을 더 깊이 파악하게 되였다.

그들은 대동문의 단청을 해당 시기의 특성이 잘 살아나도록 고색창연하게 보색하기 위하여 단청전문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 적중한 색감을 선택하였다. 공예사, 단청공들은 세척, 밀칠, 점표시 등을 역사 주의 원칙의 요구대로 깐깐히 진행하여 대동문 단청보색을 높은 수준에서 끝내였다.

관리소에서는 이밖에도 시기별, 계절별로 유적들의 땅마루 손질과 센 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대책하기 위

한 사업, 설명문, 표식주들의 글자보색과 같은 사업들도 계획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올해 봄철에만도 대동문, 련광정, 평양종각, 숭령전을 비롯한 역사유적들의 주변에 백수십 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심어 유적들의 풍치를 더욱 돋구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모란봉에 있는 옛 평양성벽들에 대한 보수작업과 함께 대동문 판석을 바로 잡는 작업을 기술적요구대로 하였다.

관리원들은 나라의 재보들에 대한 관리를 책임졌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매일과 같이 도로들과 록지구간, 주변정리를 문화적으로 진행해나가고 있다.

관리원 박은향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는 일은 크게 빛이 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역사유적유물을 보존관리하는 사업이 후대들에게 민족적 궁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중요한 애국사업이기에 우리는 여기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평양시 민족유산보호관리소 종업원들의 이런 애국의 마음에 받들려 수많은 역사유적유물들은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도 민족의 국보로 빛을 뿌리게 될 것이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리은별



함경남도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1)

-합흥선화당-

함경남도 함흥시에 있는 함흥선화당은 조선봉건왕조시기 함경도감영의 기본건물이다.

함흥감영은 여러채의 건물들이 큰 건축군을 이루고 있었으나 지금은 선화당과 부속건물인 징청각만 남아있다. 선화당은 1416년에 처음 세우고 1710년과 1764년에 다시 지은것이다.

선화당은 정면 8간, 측면 4간의 겹처마합각집이다. 나지막한 기단우에 네모나게 다틈은 주춧돌을 놓고 바깥쪽으로 돌아가면서 24개의 훌립기둥을 한줄로 세웠으며 3의 공바깥도리식의 두공을 얹었다.

액방우에는 길이 1.3m, 높이 0.5m나 되는 큰꽃무늬화반과 커다란 물고기를 가로 문 라치를 형상한 화반이 있으며 모두단청으로 아름답게 단장하였다. 건물안에는 앞뒤로 7개씩의 네모기

등을 줄지어 세워 그 안쪽에 방을 만들고 바깥쪽으로는 퇴를 이루게 하였으며 매간에는 분합문을 달았는데 때로는 그것을 들어올려 매여달아놓고 넓은 대청으로도 쓸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건물안의 천정은 아름다운 소란반자로 하였다.

징청각은 정면 6간, 측면 3간의 겹처마합각집인데 두공도 없고 단청도 하지 않았다.

함흥선화당은 두공을 짠 솜씨와 화반의 무늬가 특별히 훌륭하여 우리 나라 옛 건축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조선봉건왕조시기 관청건물의 건축양식과 그 규모를 잘 보여주는 귀중한 건축유산이다.

* * *



조국의 각 도 특산물들 (28)

량강도의 특산 - 언감자국수와 언감자떡

국수와 떡은 우리 인민들이 좋아하는 음식인것으로 하여 예로부터 어느 지방이나 할것없이 즐겨 만들어먹었으며 그 과정에 지방적특색을 띠는 국수와 떡들도 생겨나고 그것이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량강도의 특산으로 알려진 언감자국수와 언감자떡도 마찬가지이다.

언감자국수와 언감자떡은 우리나라에서 감자가 재배되어 음식재료로 식생활에 이용되어오는 과정에 나온 음식이라고 할 수 있다. 《오주연면장전산고》와 같은 옛 문헌들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19세기 전반기부터 감자가 재배되기 시작하였다 고 한다.

추위견딜성이 강하고 단위면 적당 생산성이 높은 다수확작물

로 알려진 감자는 북부고산지대에서 재배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후 전국각지로 급속히 퍼져 주부식물재료로 널리 이용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 언감자를 가지고 국수와 떡을 만들어먹게 되었다.

량강도지방의 감자는 다른 지방의 감자에 비해 농마함량이 매우 높아 주식으로 이용하는데 보다 적합하다.

언감자국수와 언감자떡은 일 반적으로 가을에 밭에 그냥 두어 한해 겨울을 나게 한 감자를 이듬해 봄에 캐여 말리워서 낸 가루로 만든다.

언감자국수만드는 방법을 보면 먼저 언감자가루를 여러번 물을 갈아주면서 물이 맑아질 때까지 우리 고물을 찌운 다음 둥글납작하게 빚어 센 김에서 10분동안 찌낸다. 다음 소금을 두고 다

시 반죽하여 15~20분정도 다시 찌낸다.

이것을 식기 전에 국수분틀에 넣고 눌러 찬물에 찢어 그릇에 담고 고기, 김치, 양념장, 오이 등을 꾸미로 얹고 실닭알로 고명한다.

언감자국수에는 참기름을 넣어야 제맛이 난다.

언감자떡은 언감자가루에 끓는 소금물을 두고 익반죽한 다음 조금씩 떼내여 팔소를 넣고 조개 모양으로 빚어 솔잎을 깐 찜가마에서 찌내고 찬물에 담그어 식혀 참기름을 끌라서 먹는다.

오늘도 언감자국수와 언감자떡은 량강도지방의 특색있는 음식의 하나로 널리 장려되고 있다.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연구사 안현철

10월의 절기와 민속

10월의 절기로는 한로와 상강이 있다.

한로는 찬이슬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뜻에서 이르는 말인데 올해에는 10월 8일이다.

상강은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뜻에서 이르는 말이며 올해에는 10월 23일이다. 상강이 지나서부터 날씨는 차지고 낮과 밤의 기온차이가 심해지며 추위가 오기 시작한다.

이 시기는 가을걷이와 날알털기로 바쁜 계절로서 가을에

는 부지깽이도 덤벙인다는 속담까지 전해오고 있다.

한로를 전후하여 논과 벌에서는 벼가을을 하고 콩, 조, 수수를 비롯한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한편 가을밀보리씨불임을 하였으며 상강때에는 김장배추묶어주기도 하였다.

10월절기의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콩음식과 추어탕을 들 수 있다.

이 시기 즐겨 만들어먹은 콩음식에는 평안도지방의 된비지와 콩국, 함경도지방의

콩지짐과 콩나물김치, 황해도지방의 순두부국밥과 두부탕 등이 있다.

농민들은 가을걷이를 앞둔 때에 미꾸라지를 가지고 추어탕을 푸짐히 끓여먹고 기운을 돋구운 하였는데 특히 개성지방의 추어탕이 유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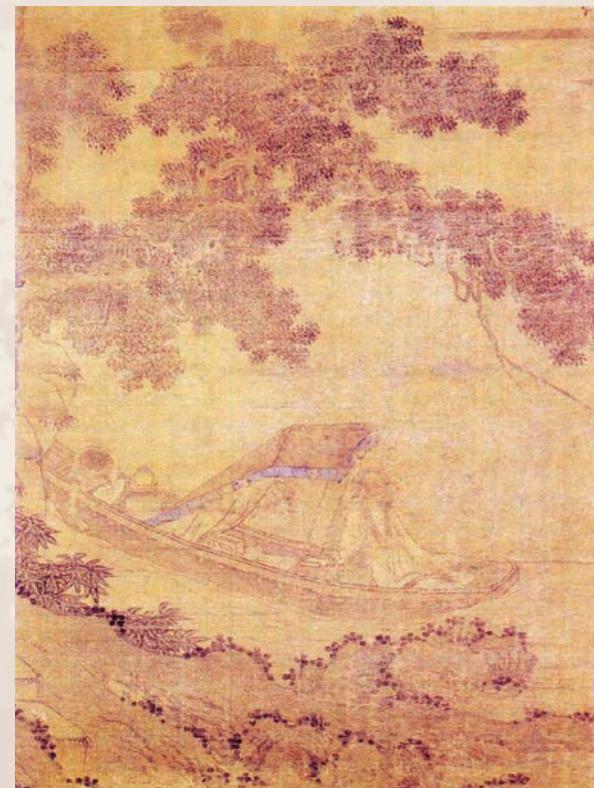
다양한 민속놀이도 진행되었다. 특히 어린이들이 즐겨하는 숨박꼭질, 망차기, 꼬리잡기 등이 이채를 띠었다.

* * *

리상좌와 그의 그림들



《하늘소를 타고》(18.7×20.3cm) 비단·먹



《낚시질》(155×86.5cm) 비단·채색



《달밤에 소나무밀을 거닐며》(197×82.2cm)
비단·담채



《쪽잠》(18.7×15.4cm) 비단·담채

리상좌(1465년-?)는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이름난 화가이다.

그는 뛰여난 그림재주로 하여 노비신분에서 벗어나 도화서의 화원으로 되었다.

그는 풍경화, 인물화, 정물화의 능수로, 특출한 삽화가로 알려졌다.

한때 그는 왕의 초상도 그리였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달밤에 소나무밀을 거닐며》, 《낚시질》, 《쪽잠》 등이 전해지고 있다. 《달밤에 소나무밀을 거닐며》는 그의 회화적기량을 보여주는 걸작품의 하나이다. 이것은 벼랑에 뿐 리를 박고 끗끗이 서있는 소나무를 형상한 그림으로서 그 어떤 시련도 기어이 이겨내려는 화가자신

의 의지를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의지는 그의 다른 작품들에서도 표현되고있다.

작품들은 당시 화단을 지배하고있던 양반사대부들의 고루하고 형식주의적인 화풍을 벗어나려는 화가의 지향을 보여주고있다.

당대에 그의 화풍을 따를만한 화가가 없었다고 한다.

리상좌의 우수한 창작적기량과 힘있는 필치, 화족들이 안겨주는 강한 기백 등은 당시의 회화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오늘날 조선화의 발전과 연구에서 귀중한 자료로 된다.

* * *

황해남도의 일부 지명들 (1)

황해남도는 우리 나라 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도이다.

도는 대동강, 재령강, 폐성강을 사이에 두고 남포시, 황해북도, 개성시와 경계하고 있으며 남부와 서부는 조선서해와 면하여 있다.

본래 이 지역은 고대에 고조선의 땅이었고 그 후에는 고구려 지역이었으며 발해 및 후기 신라 시기에는 재령강 동쪽 지역만 후기 신라에 속해 있었다.

고려 995년에 판내도로, 후에 서해도로, 조선봉건왕조 초기인 1395년에 풍해도로 되었다가 1417년에 황해도로 고쳐졌다.

주체 43(1954)년 10월에 황해도를 갈라 황해북도와 황해남도를 새로 내오면서 남쪽의 해변 가지역이라 하여 황해남도로 불리웠다.

황해도에서 《황해》는 이 지역의 주요 고을이었던 황주와 해주에서 한글자씩 따서 부른 이름이다. 황주는 오늘의 황해북도에 속해 있으며 해주는 황해남도의 소재지이다.

해주는 남쪽에 큰 바다와 립하였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일명 대녕, 서해, 안서, 수양 등으로 불렸다.

대녕은 안정된 큰 고을이라는 뜻이고 서해는 서쪽으로 바다를 끼고 있다 하여 부른 이름이다. 안서는 고려시기 도호부로 승격되면서 불리우게 된 이름으로서 나라의 서쪽 지역을 편안하게 안정시킨 고을이라는 뜻에서 지어진 이름이다.

해주의 자랑으로 되는 수양산은 사방으로 산발들이 뻗어 있으며 많은 봉우리들로 이루어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옥계골의 구슬같은 물과 함께 폭포, 푸른 담소로 하여 더욱 아름답다.

수양산에는 고구려시기에 쌓은 수양산성과 해주5층탑, 고려시기에 쌓은 얼음창고인 해주석빙고가 있다.

해주는 해주신8경과 해주구8경으로 하여 예로부터 이름났다.

해주신8경에는 잣나무숲에서 대덕산구경, 광석천에서 비단빨기, 남산에서 바다구경, 부용당에서 련꽃구경 등이 있으며 해주구8경으로는 수양산에서 고사리캐기, 신팔사에서 눈맞기 등을 들 수 있다.

해주에는 수양산성과 함께 해주다라니석당, 해주부용당 등 유적들이 있다.

해주와 함께 연안군, 옹진군, 장연군, 은률군, 안악군, 재령군 등의 지명에도 황해남도 지역의 오랜 역사가 그대로 담겨져 있다.

연안군은 고구려 때에 동음흘, 동삼흘, 시염성(또는 고염성) 등으로 불리웠다. 동음흘, 동삼흘에서 《동음》이나 《동삼》은 오목하게 생긴 지대라는 뜻이다. 시염성에서 《시염》은 소금의 옛날 말로서 옛 적부터 이곳에서 소금을 생산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 이후 시기 군의 이름은 여러 차례 변하였다.

《연안》은 고려태조 왕건이 이 지역을 지반으로 건국위업을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하여 그리고 끝없이 안전한 고을

로 되었다는 뜻에서 지어진 이름이다.

옹진군의 《옹진》은 고려초에 옹천현을 옹진현으로 고치면서 처음으로 불리웠는데 옹천의 《옹》자와 이 고장에 나루가 있다 하여 《나루 진》자를 붙여 지은 이름이다. 옹천은 고구려 때부터 부른 이름으로서 독같이 생긴 벼랑이 있는 고을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장연군의 《장연》은 고구려 때부터 오늘까지 불리우는 이름으로서 긴 뜻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 고장에 봉두소, 모정소, 겸우소를 비롯한 크고작은 못들이 많은데로부터 유래되었는데 《장담》이라고도 하였다.

한편 은률군은 고구려 때에 류구현이라고 부르다가 고려 1018년에 은률현으로 고쳐지면서 처음으로 《은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웠다. 옛날 은국사라는 절이 있었다 하여 《은》자를 따고 류구현의 《률》자를 붙인 것이다.

이밖에도 안악군의 《안악》은 외적의 침입을 막는데 유리한 산을 끼고 있는 편안하고 안정된 고을이라 하여 부른 이름이며 재령군의 《재령》은 그리운 것이 없이 살기 좋은 편안한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처럼 황해남도의 지명들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깃들어 있다.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실장 서학순

별통도 한목을

고려시기 어느 한 성의 병마사인 박서가 외래 침략군을 반대하여 싸울 때에 있은 일이다.

침략군은 대병력으로 성을 포위하고 밤낮으로 쉬임 없이 공격하여 왔다.

그러나 박서의 지휘 밑에 싸움에 떨쳐나선 성안의 군사들과 인민들은 완강한 방어로 적들의 공격을 좌절시키며 하였다.

한편 방위자들은 깊은 밤에 성문을 열고나가 적들에게 타격을 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이였다.

박서는 성안의 인민들에게 호소하여 집집마다에서 기르던 별통을 나오게 하였다.

그리고는 수십 명의 군사들을 시켜 그 별통들을 적들이 공격해 오는 풀숲에 가져다 놓게 하였다.

군사들은 박서의 지시대로 깊은 밤에 살그머니 성 밖으로 나가 적들이 공격해 오는 풀숲에 별통을 숨겨놓고 돌아왔다.

다음 날이였다.

침략자들은 여느 날과 같이 수많은 군사를 내몰아 성으로 공격해 왔다. 이때 성을 단숨에 칠듯이 밀집되어 몰려오던 적들은 별통을 차고 짓밟고 하였다. 별통들에서 터져나온 수천 수만 마리의 벌들이 침략자들에게 달라붙어 쏟아졌다. 그러자 침략군대오는 삽시에 혼란에 빠졌다.

벌에 쏘이 뛰는 자, 벌에 쏘이지 않으려고 얼굴을 싸쥐고 맴도는 자, 벌에 쫓기며 이리저리 뛰어가다 서로 부딪쳐 넘어지고 엎어져 딩

유모아

누가 깜깜인가

훈장: 《나무가지에 열마리의 새가 앉아 있다. 사냥꾼이 총으로 한마리를 쏴떨구었다. 몇 마리가 남았느냐?》

아이: 《한마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구는 자들로 하여 적의 공격대오는 삽시에 수라장으로 변했다.

이런 때를 기다리고 있던 성안의 방위자들은 적들에게 화살을 날렸다. 적들은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하고 화살벼락에 만나마 쓰러졌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 박서는 군사들로 하여금 빈 별통에다가 화약을 가득 채워 성밖의 풀숲에 내다놓게 하였다. 다음 날 아침 다시 공격해 오던 적들은 별통을 보자 뛰이라고 고아대더니 그것을 군데 군데 쌓아놓았다.

그리고 성안 방위자들에게 자기들이 다시 속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 거기에 일시에 불을 질렀다. 순간 요란한 폭음소리가 천지를 진감하며 화약통들이 터지는 바람에 적들은 사방에 뿌려지고 무리죽음을 당하였다.

성벽 위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던 박서와 방위자들은 통쾌한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하하하》

겨우 살아남은 적들은 그 웃음소리에 그만 기가 질려 도망쳐갔다.

방위자들은 그 자들을 향해 화살을 날렸다. 이때 박서가 말하였다.

《쏘지 말라. 적들을 죽이지 않아도 이미 열이 나갔으므로 살아났다고 해도 다시는 공격해 오지 못할게.》

그 말에 성벽 위에서는 또 웃음이 터졌다.

《하하하...》

* * *

훈장: 《뭐라구? 에끼 이녀석, 넌 산수에선 정말 깜깜이구나.》

아이: 《훈장님이 새에 대해서 아예 깜깜입니다.》

* * *

죄의식이 전혀 없는 확신범

(전호에서 계속)

성노예제, 시효가 없는 전쟁범죄

유엔인권리사회 제47차회의에서 일본대표가 제2차 세계대전시기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모집하였다는것은 꾸며낸 이야기라고 강변하였다.

잔인한 방법으로 현대판성노예제도를 실시하고 그 죄상이 만천하에 깨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무대에서까지 부인하고 있다는것은 아직도 범죄의식에 대한 사고와 관점이 유아적이라고 밖에는 달리 볼수 없다.

과거 일제가 수많은 여성들을 강제납치하여 일본군성노예로 끌어갔다는것은 결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수난당한 수많은 피해자들이 역사의 증언대에 나서서 일제의 죄상을 고발하고 강제납치에 관여하였던 가해자들도 과거를 뉘우치고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미국립문서보관소에는 1944년 중미련합군이 일본군통치하의 중국남부 만마첩경지역을 탈환할 당시 7명 성노예들의 모습을 담은 18초짜리 흑백동영상이 오랜 기간 보관되어 있었다.

일본군성노예로 끌려가는 조선녀성들



2017년 7월에 그것이 세상에 공개되었다. 그리고 일본국립공문서관에서는 1999년도에 19건에 182점의 공문서들이 발견되어 내각관방에 보내여졌다. 19건의 공문서들에는 법무성이 작성한 전후의 극동국제군사재판과 B급, C급 전범자재판에 관한 자료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 중의 하나인 《바파비아재판 〈제25호사건〉》 자료에는 전 일본해군의 인도네시아주둔 특별 경찰대 대장이 전후 법무성관계자에게 《산에 있는 부대를 위해 200명정도의 부녀들을 〈위안부〉로 발리섬에 데려왔다.》고 증언한 내용이 들어있었다.

이에 대하여 여러 학자, 전문가들은 《군의 관여와 강제련행을 보여주는 자료》, 《군이 강제로 위안부를 련행하였다는것을 명백히 보여 준다.》고 하였다.

2007년 3월에 공개된 아오찌 와시오에 대한 자료도 있다. 그것은 1946년 10월 네데를란드림시군법회의에서 한 증언과 판결문에 반영된 것이었다.

피고 아오찌는 점령지의 일본군정당국의 지시를 받고 《위안소》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2007년 4월 11일 일본 교도통

신은 이 문서는 일본군이 《위안소》설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것을 자료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때문에 성노예강제련행사실을 뒤받침해주는 증거자료로서 가치가 크다고 보도하였다.

오죽하면 일본침략군 병사의 유가족들까지도 《지난날 <성전>이라고 배운 전쟁이 얼마나 잔악한 침략전쟁이였는가 하는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아시아나라 민중의 고통과 슬픔, 풀길없는 깊은 상처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다. 그들이 <영령>으로 칭송되고 전쟁이 미화되는것을 거부해야 한다.》고 하였겠는가.

이 증언들이야말로 현대판성노예제도의 조직자, 관리운영자가 다름아닌 일본정부이고 군부이며 그것이 철두철미 강제성을 떤다는것을 론박할 여지없이 확증해주고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 천인공노할 죄악에 대해 책임을 느끼기는커녕 특대형반인륜범죄행위를 전면부인하고있다.

일본의 정치가들은 과거사에 대해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일본인구의 80%가 전후세대로서 그들에게 사죄를 계속할 숙명을 지워서는 안된다고 떠들면서 오히려 침략역사를 정당화하고있다.

성노예피해자들을 《매춘부》로 모독하고 전

시장간은 전쟁범죄나 반인륜적범죄가 아니라고 뺏대는가 하면 교파서들에서 일제의 성노예범죄의 기록을 지워버리는 등 범죄사실 자체를 없애버리려 하고있다.

지어 성노예라는 표현을 아예 쓰지 못하게 하고 이제는 《종군》이라는 표현마저 없애려 하고있다.

일본의 이러한 행태는 국제법적견지에서 보나 인륜도덕적견지에서 보나 절대로 용납할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이며 정의와 인류량심에 대한 우롱이고 도전이 아닐수 없다.

인간의 초보적인 생존권과 여성의 존엄을 유린한 저들의 특대형반인륜범죄를 부인, 은폐하여 과거범죄의 법적, 도덕적책임에서 벗어나보려는 일본의 철면피성에 세계가 경악하고있다.

일본의 빼뚤어진 사고관점의 밀바탕에는 파연 무엇이 있는가를 투시해볼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와 민족들을 침략하고 짓밟던 지난날에 대한 향수가 깔려있으며 나아가서 침략역사를 되풀이하려는 흥심이 비껴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일본군성노예범죄는 일본이 부정하거나 책임을 회피한다고 하여 없어지거나 달라질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전쟁범죄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며 특히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은 시효가 없는 전쟁범죄이다.

일본은 증거가 명백하고 부인할수 없는 엄중한 죄행을 회피하려 할것이 아니라 과거 일제가 저지른 전대미문의 범죄에 대하여 죄책감을 가지고 진심으로 사죄, 배상하여야 하며 과거를 똑똑히 청산하여야 한다.

성노예피해자들과 그 혼족들, 후예들, 아시아인민들은 구일본이 저지른 엄중한 죄과를 역사의 흑막속에 덮어버리고 또다시 반인륜적범죄의 길로 나가려는 일본정부의 그릇된 처사를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는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끝)

명승-태성호



태성호는 남포시 강서구역과 통강군에 자리잡고 있는 관개용인공호수이다.

호수의 면적은 7.82km²이며 둘레는 32.1km, 길이는 6.8km, 너비는 1.2km이다.

호안의 굴곡이 매우 복잡한 호수에는 여러개의 섬이 있으며 호수일대는 해발높이 200m안팎의 낮은 산지와 벌로 되어있다.

수정같이 맑고 잔잔한 호수의 주변에는 소나무, 참나무, 아카시아나무를 비롯한 갖가지 나무들이 우거져있어 풍치가 아름답다. 그리고 호수에는 기념어, 붕어, 잉어, 화려어 등 물고기들이 많다.

호수가에는 체육오락기지의 하나인 평양골프

장이 있다. 자연환경에 잘 어울리게 꾸려진 골프장은 찾아오는 골프애호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다. 골프장에는 봉사시설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

이외에도 태성호와 그 주변은 휴양지로도 이용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문화휴양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다.

태성호주변일대에는 우리 나라의 혁사유적인 련꽃무덤, 태성리1호무덤과 태성리2호무덤, 태성리3호무덤 등이 있다.

본사기자



잡지 《금수강산》은 인터넷 《조선의 출판물》 홈페이지에
조선어, 로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flph@star-co.net.kp

